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국제지역학석사 학위논문

# 한·중FTA의 전략과 산업별 경쟁력 분석



2009년 8월

부경대학교대학원

국제지역학과

李平瑞

국제지역학석사 학위논문

# 한·중FTA의 전략과 산업별 경쟁력 분석

지도교수 고종환

이 논문을 국제지역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8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국제지역학과

李平瑞

李平瑞의 국제지역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9년 8월



주 심 사회학박사 이 중 희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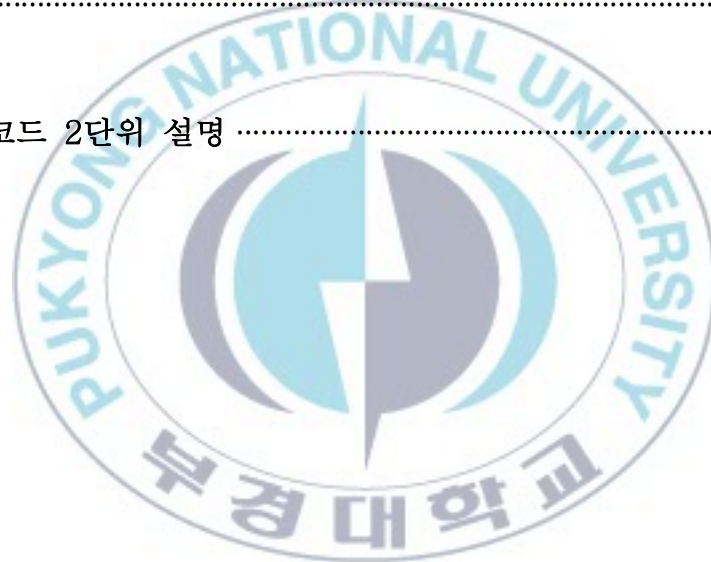
위 원 경제학박사 서 석 홍 인

위 원 경제학박사 고 종 환 인

## < 목 차 >

|                                      |        |
|--------------------------------------|--------|
| 표 목차 .....                           | vi     |
| 그림 목차 .....                          | vii    |
| Abstract .....                       | viii   |
| <br>제 I 장 서론 .....                   | <br>1  |
| 제 1 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 1      |
| 제 2 절 기존연구에 대한 검토 .....              | 3      |
| 제 3 절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 .....            | 6      |
| <br>제 II 장 이론적 고찰 .....              | <br>7  |
| 제 1 절 FTA의 개념과 경제통합의 유형 .....        | 7      |
| 제 2 절 산업경쟁력의 개념과 분석방법 .....          | 10     |
| <br>제 III 장 한국과 중국FTA의 전략 및 비교 ..... | <br>14 |
| 제 1 절 한·중FTA의 배경 .....               | 14     |
| 제 2 절 한국FTA의 전략 .....                | 15     |
| 제 3 절 중국FTA의 전략 .....                | 25     |
| 제 4 절 한·중FTA 전략비교 .....              | 34     |
| <br>제 IV 장 한·중 경제관계와 경쟁력 분석 .....    | <br>36 |
| 제 1 절 한·중간 무역관계 .....                | 36     |

|                                  |        |
|----------------------------------|--------|
| 제 2 절 한·중간 투자관계 .....            | 45     |
| 제 3 절 한·중간 산업별 경쟁력 비교분석 .....    | 51     |
| <br>제 V 장 결론 .....               | <br>69 |
| 제 1 절 요약 .....                   | 69     |
| 제 2 절 한·중FTA의 추진전략에 대한 시사점 ..... | 71     |
| <br>참고문헌 .....                   | <br>73 |
| <br>부록 HS코드 2단위 설명 .....         | <br>7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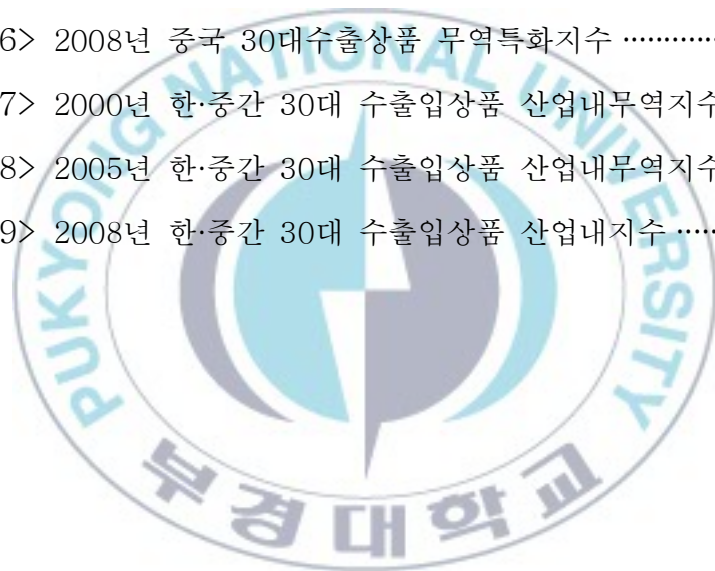


## 〈 표 목 차 〉

|                                       |    |
|---------------------------------------|----|
| <표 2-1> 경제통합의 종류와 포괄범위 .....          | 8  |
| <표 3-1> FTA추진시 시기적구분과 고려사항 .....      | 23 |
| <표 4-1> 한·중 무역의 추이 .....              | 38 |
| <표 4-2> 한국의 대 중국10대 수출상품의 변화 추이 ..... | 40 |
| <표 4-3> 한국의 대 중국10대 수입상품의 변화 추이 ..... | 41 |
| <표 4-4> 한국의 대 중국수출의 생산단계별 분포 .....    | 42 |
| <표 4-5> 한국의 대 중국수입의 생산단계별 분포 .....    | 43 |
| <표 4-6> 한국의 대 중국 직접투자 추이 .....        | 47 |
| <표 4-7> 중국의 대 한국 직접투자 추이 .....        | 50 |
| <표 4-8> 한국 30대 수출상품 무역특화지수 .....      | 52 |
| <표 4-9> 중국 30대 수출상품 무역특화지수 .....      | 56 |
| <표 4-10> 한·중 수출경합도지수 .....            | 61 |
| <표 4-11> 한·중 수출시장경합도지수 .....          | 62 |
| <표 4-12> 한·중간 30대 수출입상품 산업내무역지수 ..... | 64 |

## 〈 그림 목 차 〉

|                                             |    |
|---------------------------------------------|----|
| <그림 4-1> 2000년 한국 30대 수출상품 무역특화지수 .....     | 53 |
| <그림 4-2> 2005년 한국 30대 수출상품 무역특화지수 .....     | 54 |
| <그림 4-3> 2008년 한국 30대 수출상품 무역특화지수 .....     | 55 |
| <그림 4-4> 2000년 중국 30대수출상품 무역특화지수 .....      | 57 |
| <그림 4-5> 2005년 중국 30대수출상품 무역특화지수 .....      | 58 |
| <그림 4-6> 2008년 중국 30대수출상품 무역특화지수 .....      | 59 |
| <그림 4-7> 2000년 한·중간 30대 수출입상품 산업내무역지수 ..... | 65 |
| <그림 4-8> 2005년 한·중간 30대 수출입상품 산업내무역지수 ..... | 66 |
| <그림 4-9> 2008년 한·중간 30대 수출입상품 산업내지수 .....   | 67 |



Strategies of a China-Korea FTA and Analysis of Competitiveness by  
Industry

li Pingrui

Department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As the Doha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with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came to a standstill, free trade agreements (FTAs) have gradually come to be the focus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have been pursued by a large number of countries. Since China and Korea formally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hip more than a decade ago, the economic and trad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have grown substantially and attracted much attention worldwide. The two governments also place the formation of FTAs on their agenda of economic cooperation.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forecast the possibility for a Sino-Korea FTA based on the FTA policies in both countries and an analysis of the competitiveness in various industries using four indices such as trade specialization index (TSI), export similarity index (ESI), export market intensity index (EMI) and intra-industry trade index (IIT).

Based on an empirical analysis of competitiveness by industry of China and Korea, it can be concluded that although there are some sensitive industries (e.g. agriculture), however, there is still some flexibility in the negotiation on these sensitive areas. If both governments can consider the whole scenario for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above everything else,

all of these detailed issues are probably to be solved. Furthermore there is a very great room to supplement each other in some industries (e.g. ship-building, electronics, etc.).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Sino-Korea FTA, if there is a win-win situation in these supplementing industries, there will be a great possibility for two countries to reach an FTA. Anyway, the possibility for the two countries to get an FTA passed is based on the cooperating attitude and the implementing policies of both governments.

Key words: China-Korea FTA, Competitiveness by Industry, Strategies of a China-Korea FTA, trade specialization index(TSI), export similarity index(ESI), export market intensity index(EMI) and intra-industry trade index(IIT), a win-win situation.



# 제 I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자유무역협정(FTA)은 양국 또는 양국 이상의 경제체 또는 주권국가가 상호간 관세를 인하 또는 기타 고정비용을 감소시키고, 상호간 자유무역 장벽을 제거하여, 상호간 무역활동을 촉진시키는 협정이다. FTA는 경제통합의 한 가지 형태로서 무역자유화 협상의 반작용으로 각 경제체는 다자체제의 자유화를 선도하는 다자 또는 지역형의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자유협정에 공식서명하며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는 미주의 미주자유무역지역(FTAA),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남미공동시장(MERCOSUR), 중미공동시장(CACOM) 및 장래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과 '중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전면경제협력구조협정' 등을 포괄한다.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의 전제를 만든 것은 쌍방 또는 다자간의 자유무역협정이다.

현재 WTO의 도하개발 AGENDA는 정체되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의 국가는 점차 다자무역협상 추진을 언급하는 협상측이 많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들이 주목하는 영역은 각각 다르다.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이 서비스무역시장 개방을 주요 협상 내용으로 할 것을 희망하고 있고, 반면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이 농산물 보조 삭감을 주요 협상 내용으로 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은 다자무역협상체제가 진일보 발전하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다수의 국가는 지역경제통합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여 상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다. 자유무역협정은 다자무역협상 중 언급된 민감한 부문을 피

할 수 있다. 특히 1990년대 이래 경제 세계화에 따라 지역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 되었고, 지역경제통합은 신경제통합의 주요형식이 되었다. 대다수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점차 지역주의를 시행하기 시작하여 적극적으로 그 지역의 지역공동체화 과정을 추진하였다. 2008년 7월 23일 기준으로 세계무역기구(WTO)는 지역무역협정 체결국 153개 중 80%가 최근 10년 내에 체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절대다수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모두 1개 또는 1개 이상의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추산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은 평균 5개 이상의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 세계 무역의 50%이상은 지역무역협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아시아지역 국가 대부분 자국의 FTA/RTA 체계를 구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이는 국제경제 환경의 새로운 변화라고 여기고 있다.

한·중자유무역협정은 1999년 한·중·일 정상회담합의와 2002년 프놈펜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제안에 따라 3국의 FTA연구가 시작되었다. 중국정부는 정식으로 구축 의사를 제기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가시적인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상호이익의 견해 차이에 따라 관련 당국의 태도도 판이하게 다르다. 2001년 11월 5일, 중국국무원 전 총리 주룽지(朱鎔基)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적절한 시기에 한·중·일 3국의 자유무역협정의 가능성 연구를 추진할 의사를 제기하였다. 중국이 자유무역협정체결을 공식서명 한 후 한·중·일 아시아 주요 경제 강국의 향후 행보는 더욱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 날, 주룽지(朱鎔基) 중국 총리는 동아시아 연맹 10개국 지도자들과 '중국-아세안' FTA체결을 위한 기본협정에 공식서명하고, 2010년까지 중국-아세안 FTA를 체결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것은 동아시아 지역경제 통합의 중대한 돌파구가 되었다. 한국 역시 한국-아세안(ASEAN)자유무

역협정 체결 가능성에 대하여 고려 할 의사를 나타내었다. 동아시아지역에 3개의 “10+1”(즉, ASEAN+ 한·중·일 3국)자유무역협정이 출현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한·중·일간 역시 경제협력체제의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만약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이 성공적으로 체결된다면, 동아시아지역의 경제협력체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앞으로 한·중간의 경제교류와 무역관계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며 양국은 각기 처해있는 국정상황을 고려하여 상반된 FTA 정책을 내 놓을 것이다. 본 논문은 한국과 중국의 FTA 전략을 비교하고, 양국의 산업간 경쟁력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한·중 FTA'의 체결가능성을 예측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먼저 FTA의 정의와 양국 FTA의 체결 배경에 대하여 서술하고, 다음으로 한·중 FTA 체결 가능성에 대비하여 양국의 산업별 경쟁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 제 2 절 기존연구에 대한 검토

한·중 FTA의 전략비교 및 한·중 산업별 경쟁력 분석은 이미 김덕수(2007), 강준영·정환우(2007), 김시중(2007), 류중리(刘重力)·성웨이(盛伟)(2008.1), 정인교·조정란(2008)등에 의해 연구되었다. 이들의 연구에 의한 한·중FTA 전략 비교 및 산업별 경쟁력 분석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한·중 FTA 전략 비교에 관한 연구에서 김덕수(韓·中 FTA推進에 따른 對應方案, 2007.12)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은 한·중 FTA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 한국에 표명하였고 이샤오준 중국 상무부차관보는 이미 2005년8월 쌀을 비롯한 한국측의 민감 품목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하는 식으로 유연하게 처리 가능하다는 입장을 개진하였다. 또한 한·중 FTA의 최대 걸림돌인 농산물 문제에 관하여 큰 폭으로 양보할 뜻까지 전달하였다고 보도하였고, 2006년 5월 한국을 방문한 보실라이 중국 상무부장 역시 한·중 FTA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수차례 언급한 바 있었다. 이러한 중국의 한·중 FTA에 대한 적극적 '구애'는 한·미 FTA가 개시된 이래 더욱더 거세어져 왔으며, 이에 반해 한국은 한·중 FTA추진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은 한·중 FTA를 단순히 한·중 양자 간 무역확대를 위한 경제협정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국가 발전과 관련한 대외전략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강준영·정환우(2007)는 중국이 한국과 FTA를 맺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효과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과의 FTA를 통해 구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획득하기 용이한 기술수준을 보유한 한국과의 FTA를 통해 자국 산업의 고도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동북지역 노후 공업기지의 대외개방 촉진 및 실제 결과를 논의로 하더라도, 역시 중국이 한·중 FTA를 통해 얻으려는 경제적 효과의 하나이다. 동아시아지역 경제통합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꼽히는 곳 중 하나인 환(環)황해지역에서 한국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한·중 FTA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킴으로써 역내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한·중 중심의 경제협력체로 쏠리도록 하는 'FTA 도미노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시중(2007)은 중국은 정부 고위층의 전략적 결정이 내려지면 이를 집행하기 용이한 정치체제를 갖고 있는 반면, 한국은 복잡한 정치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을 거쳐서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는 체제이기 때문에 한·중 FTA의 추진 역시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한·중 FTA

논의가 본격화 될 경우 한국 내에서 이를 통해 큰 타격을 입게 될 농민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반대 운동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유중리(劉重力)·성위(盛偉)(2008)등의 연구에 의하면 중국이 FTA를 추진 시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은 지속적인 국내 경제 발전의 영향으로 원자재시장과 수출시장이 절박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의 FTA전략은 실용성과 융통성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FTA전략은 중국과 비하면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FTA전략은 미국과 EU와의 FTA를 체결함으로써 경제구조와 무역정책을 최적화하여 향후 한국과 중국, 인도, 일본과의 FTA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된다고 했다.

또한 한·중 산업별 경쟁력 분석에 대해서 정인교·조정란(2008)의 논문에서 한·중 FTA 체결시 한국제조업에 대한 영향(생산, 교역, 고용)을 실증 분석하였다. 제조업만으로 보면, 중국과의 FTA는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제조업 고용도 상당 수준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부분의 한국의 산업이 중국에 대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높은 관세를 철폐가 가격경쟁력 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대 중국 수출 증가로 한국이 많은 경제이익을 누렸음은 다수의 학자들에 의해 피력된 바 있다. 한·중 FTA는 대중 수출 추세를 강화시키는 것이므로 한국은 중국과의 FTA 체결로 높은 경제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01년에 이어서 최근 몇 년사이 진전된 산업구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부품의 경우, 대중 수출이 급속하게 늘고 있어 이를 시뮬레이션에 반영하게 되면 경제효과가 달라질 것이다. 한편, 중국산 농산물 수입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하면 농업의 개방 부담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농업에 대한 구조조정 부담으로 한국 정부는 중국과의 FTA 추진에 적극적인 점을 고려하면, 민감분야에 대한 사전합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농업에 대한 FTA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 제 3 절 연구 방법 및 구성

본 논문의 주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실증분석이다. 다른 연구자들의 저서, 논문 등의 기존연구를 중심으로 한·중 FTA의 전략을 비교 연구하고, 한·중 산업간의 경쟁력을 분석 할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 I 장에서는 전술하였듯이 연구의 목적 기존연구에 대한 검토,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에 대해 제시하였다. 제II장에서는 FTA의 정의 및 개념을 제시할 것이다. 제III장에서는 한·중 FTA에 관한 기존연구를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 FTA의 전략 및 비교를 진행할 것이다. 제IV장은 '한·중 FTA'의 체결에 대비하여 한·중경제 관계와 경쟁력분석에 대해서 진행할 것이다. 제V장은 결론으로서 각장들에서 도출한 결과들을 정리하여 앞으로의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을 논하고자한다.

## 제Ⅱ장 이론적 고찰

### 제 1 절 FTA의 개념과 경제통합의유형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다.

최근 들어 경제통합이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과 경험적인 분석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제시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통일된 정의는 없는 실정이다.

대체로 경제통합은 통합되어 있는 경제사이의 양상이 얼마나 다른가를 기술하는 데 사용하는 용어이다. 경제통합이 증가하면 할수록, 시장에서의 무역 장벽은 감소한다. 오늘날 독립 국가들 중에서 가장 경제적 통합이 된 것은 유럽연합과 유로 존이다.

이제까지 결성된 경제통합체들과 특히 EU의 경험을 비추어 본다면 발전 단계별로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표 2-1〉 경제통합의 종류와 포괄 범위

|                                                               | 회원국간<br>무역 특혜 | 역내<br>관세 철폐 | 역외<br>공동관세<br>부과 | 역내<br>생산요소<br>자유이동<br>보장 | 역내<br>공동경제<br>정책<br>수행 | 초국가적<br>기구<br>설치·운영 |
|---------------------------------------------------------------|---------------|-------------|------------------|--------------------------|------------------------|---------------------|
| 특혜무역협정<br>(Preferential<br>trading<br>arrangement)            | ○             | ×           | ×                | ×                        | ×                      | ×                   |
| 자유무역협정<br>(Free trade<br>agreement)<br>(NAFTA,<br>EFTA 등)     | ○             | ○           | ×                | ×                        | ×                      | ×                   |
| 관세동맹<br>(Custom union)<br>(베네룩스 관세<br>동맹)                     | ○             | ○           | ○                | ×                        | ×                      | ×                   |
| 공동시장<br>(Common<br>market)<br>(EEC, CACM,<br>CCM, ANCOM<br>등) | ○             | ○           | ○                | ○                        | ×                      | ×                   |
| 완전경제통합<br>(Economic<br>union)<br>(마스트리히트<br>조약 발효이후의<br>EU)   | ○             | ○           | ○                | ○                        | ○                      | ○                   |

주: 외교통상부, 지역무역협정소개, 인용 (<http://www.fta.co.kr/intro/intro.>)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은 특정 국가로부터 특정 상품에 대한 우선적인 접근을 허락하는 무역 블록이다. 이는 관세를 줄여 주지만 완전히 폐지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유럽연합의 초기단계와 ACP(ACP: 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countries) 국가를 들 수 있다. 특혜무역지역(PTA)은 무역 협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경제통합의 가장 낮은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다.

이러한 경제통합으로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ropean Trade Association),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아세안 자유무역협정(AFTA), 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CERTA) 등을 들 수 있다.

관세동맹(Custom union)은 자유무역지역에서 한 단계 발전된 것으로 국가 사이의 관세제도를 통일하여 동맹국 상호 간에는 관세를 폐지 또는 인하하고 제3국에 대하여는 공통된 관세를 설정하는 동맹이다. 경제통합의 이론은 관세동맹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19세기 중엽의 독일의 Zollverein이 관세동맹의 효시가 되었으며 2차 대전 후의 베네룩스 관세동맹을 위시하여 EU 역시 관세동맹을 제1차 목표로 출발하였는데 EU는 1968년 7월에 관세동맹을 완성하였다.

공동시장(Common market)은 국제간의 교역량을 확대시키고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통합된 시장이다.

이러한 경제통합의 형태로는 1986년 7월 EU가 로마조약을 개정한 단일 유럽의정서(SEA: Single European Act)를 발동시킴으로써 1992년 말까지 상품, 노동,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에 계약을 가하고 있는 총 282

개의 역내무역장벽을 폐지한다는 시장통합계획을 완성시킴에 따라 1993년 1월 단일공동시장이 출범된 사례가 있다.

완전경제통합(Economic union)은 회원국이 경제동맹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기구를 만들고, 그 기구가 각 회원국들의 경제, 사회정책을 조정, 관리하는 형태의 경제통합으로써 경제통합의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다. 이 형태는 사실상 새로운 국가를 형성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각 회원국들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주권을 포기하고 단일국가처럼 통합되어야만 한다.

## 제 2 절 산업경쟁력의 개념과 분석방법

### 가. 산업경쟁력의 개념

산업경쟁력이란 기업이 주체가 되어 인적, 물적 자원과 기술에다가 기업의 경영능력을 결합함으로써 얻어지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력을 말한다(삼성경제연구소, 1995, p. 57).

### 나. 산업경쟁력의 분석방법

본 논문의 한·중간 산업별 경쟁력 분석 방법은 무역특화지수, 수출경합도 지수, 수출시장밀도지수, 산업내무역지수 등 4가지 지수를 이용한다. 아래는 이 4가지 지수에 대한 간단한 소개이다.

### (1) 무역특화 지수

무역특화지수 (TSI: Trade Specialization Index) 는 한 상품의 총수출액과 총수입액, 그리고 전체무역액을 이용해 상품의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그 공식은 다음과 같다.

$$TSI_i = (X_{Ai} - M_{Ai}) / (X_{Ai} + M_{Ai})$$

공식에서  $X_{Ai}$ 와  $M_{Ai}$  는 A국가의 i상품 수출과 수입을 나타낸다. TSI 지수는  $-1(X_{Ai}=0, M_{Ai} > 0 \text{ 일 경우})$  과  $+1(X_{Ai} > 0, M_{Ai}=0 \text{ 일 경우})$  사이이다. 지수가 클수록 A국가 i상품의 경쟁우위도 커진다. 이 지수가 0인 경우 비교우위는 중간정도이며 1이면 완전 수출특화상태를 말한다. 수입은 전혀 하지 않고 수출만 한다는 뜻이다. 또  $-1$ 이면 완전 수입특화 상태이다. 수출물량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입만 한다는 뜻이다.

이 지수는 국제경쟁력 지수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럴 경우 0 이상 1 이 하이면 그 제품이나 산업이 무역흑자를 기록해 국제경쟁력이 강한 것을 뜻하고  $-1$ 에 가까울수록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하거나 수출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 수출경합도 지수

수출경합도지수(ESI: Export Similarity Index)는 양국의 수출구조가 유사할수록 경쟁이 높다는 가정하에 특정 시장에서 양국 간의 경쟁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ESI_{AB} = \sum_i \min(X_{Ai}/X_A, X_{Bi}/X_B)$$

공식에서  $X_A$ 와  $X_B$ 는 각각 A국과 B국의 총 수출을 나타내고,  $X_{Ai}$ 와  $X_{Bi}$ 는 각각 A국과 B국의 i상품 총수출을 나타낸다.  $ESI \leq 1$ 일 때 비교적 이상적인 지수이다. 양국의 수출구조가 유사할수록 이 지수는 1에 가까워진다.

예를 들어 C국 시장에서 A, B국의 수출상품구조가 완전히 일치하면 ESI는 100, 두 나라의 수출구조가 전혀 다르면 0이 된다. 따라서 ESI의 값이 100에 가까울수록 두 나라의 수출은 경쟁적인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수출경합도지수는 A국의 C국에 대한 수출 중 상품 i의 비중과 B국의 C국에 대한 수출 중 상품 i의 비중 중에서 작은 수치에 100을 곱하는 방법으로 모든 수출상품에 대해 얻어진 값들을 합산하여 얻어진다. ESI는 다른 국제무역 관련 지표들과 달리 국제무역통계만을 이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 (3) 수출시장밀도 지수

수출시장밀도지수(EMI: Export Market Intensity Index)는 A국가에서 B국가로의 수출에 대한 수출시장 탄성지수이다.

$$EMI_{AB} = (X_{AB}/X_A)/(M_B/M)$$

$X_{AB}$ 는 A국가에서 B국가로 수출한 수출 총액,  $X_A$ 는 A국가의 수출총액이다.  $M_B$ 는 B국가의 수입총액,  $M$ 은 전세계 수입총액을 나타낸다.  $EMI > 1$ 일 때, A국가에서 B국가로 수출한 수출 총액이 전세계에서 B국으로 수출

한 수출 총액보다 크며, 이것은 B국가의 무역구조가 A국가에 의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4) 산업내무역 지수

산업내무역지수(Intra-Industries Trade Index)는 양국가의 i산업내부 무역지수이다. 이 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산업내무역이 활발하고 양국의 산업이 상호 긴밀한 보완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IIT_i = 1 - (|X_i - M_i| / (X_i + M_i))$$

우선, 이 공식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값은 0~1 사이이다.  $X_i$ 는 i산업의 수출 총액이고,  $M_i$ 는 i 산업의 수입 총액이다.  $X_i$  또는  $M_i$ 가 0일 때 (단, 동시에 0일수 없다), 이 지수는 0 이다.  $X_i$ 와  $M_i$ 가 같을 때 (둘 모두 0보다 큼), 이 지수는 1이다.

## 제 III 장 한국과 중국 FTA의 전략 및 비교

### 제 1 절 한·중 FTA의 배경

한국과 중국의 교역 및 투자 관계는 1992년 양국 간 수교 체결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해왔으며 현재 한국의 대외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0%로서 중국은 한국의 명실상부한 제1의 교역대상국이다.

급속한 경제적 관계의 확대로 한국의 대 중국 무역수지 흑자의 지속적인 증가가 야기되었으며 결국 양국 간 통상마찰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반덤핑 조치 등을 통한 무역역조 문제가 계속됨에 따라 이를 해결할 필요성이 인식되고 이러한 통상 문제의 관리와 해결을 위해 한·중 간 경제 협력의 수준을 높이고, 제도화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으로서 양국 간 경제협력 제도화로서의 한·중 FTA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중 양국은 2004년 11월 ASEAN+3회담 중 개최된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 2005년부터 2년간 한·중 FTA에 관한 민간공동연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한·중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산업별 영향, 민감 분야 등에 관한 연구를 종료하였다. 또한 2006년 11월 APEC 각료회의에서 한·중 통상장관회의를 갖고 한·중 FTA에 관한 산·관·학<sup>1)</sup> 공동연구를 2007년 1년 동안 추진하기로 함으로써 한·중 FTA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2007년 4월에는 원자바오(溫家寶)중국총리가 한국을 방문하여 한·중 FTA의 조속한 협상을 다시 한 번 촉구하였다. 산·관·학 공동연구가 이뤄지고 나면

---

1) 산: 기업; 관: 정부; 학: 연구기구

2008년부터 한·중 FTA협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중 FTA는 한국에 2.3%의 GDP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sup>2)</sup> 제조업 분야에서는 26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되는 한편 농축수산업의 경우 90%의 관세감축을 가정할 때 수입증가액이 약 1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08년 8월 25일 후진타오(胡錦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 한국을 방문하여, 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과 한·중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이 정상회담에서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인식의 일치를 보았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양측은 2,000억불 무역액 달성 목표를 2010년으로 앞당기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sup>3)</sup> 이를 위해 무역 및 투자 원활화, 품질 검사·검역, 무역구제조치, 지적재산권 분야 등에 있어서 협력을 강화하여 나가기로 했다. 동시에 양측은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중 FTA 추진을 상호 이익의 원칙에 따라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제 2 절 한국 FTA의 전략

### 가. 한국 FTA의 배경과 현황

19세기 후반의 급박한 동북아 국제정세에 대해 쇄국과 무시로 일관했던 조선의 운명은 결국 영남의 유생들이 만인소(萬人疏)에서 본래 '조선에 매어 있던 나라'라고 했던 일본의 식민지로 전략하고 마는 비운을 맞고 말았

2) 자료: [www.people.com.cn](http://www.people.com.cn) 人民网

3) 자료: [www.gov.cn](http://www.gov.cn) 中国政府网

다. 비슷한 시점에 미국에 의해 개방되어 서구의 제도와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근대국가 체제로 재편해 가는 한편 동북아시아의 강대국으로 부상하던 일본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길을 조선은 걸어갔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돌이켜 볼 때, 노무현 정부가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로 발돋움한다는 전략 하에 2003년에 FTA 로드맵을 작성하고 주변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FTA를 체결해 나가는 정책은 대단히 바람직한 것이고 한국으로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더구나 국가의 크기나 부존자원, 지정학적 위치를 볼 때 한국의 장기적인 발전전략은 국가 외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관리해 나가는가에 달려 있을 수밖에 없다(이호철 2007, 5).

한국은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와 WTO(World Trade Organization)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국이며 경제발전은 대외교역을 통해 성장을 이룬 전형적인 사례로 인용되고 있다. 또한 한국은 명실상부한 통상국가로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교역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요컨대 열린 세계시장이 한국의 경제생존과 직결되는 것이다.

최근의 세계 통상환경을 보면,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Regionalism)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경향은 과거 GATT체제보다 현재의 WTO 체제에서 오히려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각국의 FTA 체결 경쟁은 현재 진행 중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의미 있는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어 많은 국가들이 양자간 지역협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1992년 EU의 출범과 1994년 NAFTA의

발효를 계기로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FTA 네트워크 역외국가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이러한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FTA를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대외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주요 경쟁국이 FTA를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통상환경 하에서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FTA 확대에 전력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주요 경쟁국이 기타 국가와 먼저 FTA를 체결한다면 한국의 상품은 고관세 적용에 따른 가격경쟁력의 저하로 점차 그 시장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박변순 2003, p. 88). 따라서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요 교역국가들과의 FTA 체결이 필수적이다.

둘째로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FTA 추진이 필요하다. 한국 경제가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발전을 통해 진정한 선진 경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주요 통상정책으로 자리 잡은 FTA를 능동적·공세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각국은 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신장시키는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FTA 및 이에 수반되는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가 효과적임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FTA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고 있다.

한국정부는 2003년 이래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해왔으며, 금년부터는 거대경제권과 자원부국 및 주요 거점 경제권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FTA 체결 확대 전략을 통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을 통해 그동안 지체된 FTA 체결 진도를 단기간 내에 만회하였으며, 현재 FTA 체결네트워크를 전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의 세계시장 확보를 지원하고, 동아시아 FTA

허브국가로 발돋움 하려 한다(이영광 2007).

내용면에서는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분야에서의 관세 철폐 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WTO의 상품과 서비스관련 규정에 일치하는 높은 수준의 FTA 추진을 지향함으로써 다자주의를 보완하고, FTA를 통해 국내제도의 개선 및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였다. 한국은 이미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ASEAN국가들과 상품교역에 관한 부분적인 자유무역협정을 타결했다. 2007년 4월에는 미국과의 FTA 협상을 타결했고, 캐나다, 멕시코, 인도, EU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교류가 가장 활발한 이웃국가 일본과는 FTA 협상이 중단된 상태이고, 한국의 제1위 교역상대국이자 최대 투자대상국인 중국과의 협상은 아직 시작되지 않고 있다(李章揆·李麟求·呂智娜·趙異竣 2006).

## 나. 한국 FTA 전략의 동기

한국의 FTA 체결이 한국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라면 누구와 어떻게 체결해야 하는가? 이때 논의의 전제는 협정체결은 체결대상국간의 상호 이익이 있어야 하며 그 이익도 수시로 변한다는 점이다. FTA 체결에 적극적이었던 멕시코가 이제 부정적으로 변한 것에 허둥대는 한국의 현실은 그동안 모든 국제질서를 한국 중심으로 생각하던 인식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준다. 즉 한국이 필요하다고 아무 때나 협정체결이 가능한 것도 아니며, 한국의 원하는 방식으로 모두 협정이 체결되는 것도 아닌 것이다. 이 때

필요한 것은 한국의 FTA 정책에 대한 큰 로드맵을 정비하는 것이다. 개별 국가에 대한 협상은 적어도 한국 대외경제정책의 큰 방향 속에서 자리 잡고 그것을 국민에게 적극 설득하지 않으면 한-칠레 협상과 같은 혼선은 언제든지 거듭될 수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과연 누구와 어떻게 협상을 진행시켜야 하는 것인가(이영광 2007, p. 94)?

첫째, 수출시장의 확보가 중요하다면 당연히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체결이 유용하다. 이 중 미국은 농산물과 스크린쿼터, 중국은 농산물과 노동력시장의 개방이 없는 한 한국에게 소극적이며, 유럽연합은 아직 한국에게 FTA를 제안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에 불과하다.

둘째로 사회적 조정비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협정체결에 의한 개방화 충격은 폐업, 정업, 해고, 전직 등 막대한 산업적 조정을 요구한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원활히 도출하지 못하면 산업적 조정은 거대한 사회적 조정비용으로 비화 된다. 이 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 산업의 장기비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5000만의 인구가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무엇을 끝까지 보호해야 하는가? 자유무역에 의해 피해 받는 계층에 대한 보상의 물은 무엇이며 어디까지 보상해주어야 하는가? 이러한 대원칙이 형성되지 않는 한 그 어떠한 국가와의 협정체결도 격렬한 이익집단의 반발에 무산될 수밖에 없다. 한-칠레 FTA에 의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과, 포도농가 등의 반발이 전체 농민으로 확산된 것은 바로 농업전체의 개방으로 연계되어 갈 것이라는 의구심 때문이었다. 농업을 개방시킬 것인지, 보호해야 하는 농업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개방에 따른 향후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원칙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개별국가와의 체결은 사회적조정비용을 필요 이상으로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발생할 것이다(김덕수 2007).

셋째로 정치군사안보 측면에서의 중요도가 FTA 체결의 우선도에도 그

대로 적용된다. 가장 초보적인 경제적 통합과정도 상호 이해관계의 심화에 따라 국가적 연대를 심화시켜 갈 수 있다. 복잡한 동북아 국제질서 속에서 한미동맹, 한미일동맹이 중요시된다면 중국보다는 당연히 미국, 일본과의 FTA체결이 더욱 중요시 된다. 역으로 전방위 다각화 외교가 중요하며, 중국을 통해 미국을 견제하고 일본을 통해 중국과 미국을 견제하는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면 중국, 일본, 미국 등과 동시에 협상을 진행시켜야 한다. 이렇듯 FTA 체결 대상국 선정은 단순한 경제학적 논의를 벗어나는 것이다. 경제적 후생과 국민소득에의 기여도만을 가지고 체결 대상국을 선정하는 것은 경제주의적 단순논리의 허구성을 보여준다(이영광 2007, p. 95).

넷째로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 지역의 성장잠재력이 크며, 한국에게 있어서도 이 지역과의 실질적 경제연계가 진행되어 갈 것이라는 현실인식에 입각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적 불안정성을 고려할 경우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안정적인 경제협력은 한국의 경제적 정치·군사·안보적 안전보장을 위해서도 필수 불가결 하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 전체의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개별적 FTA 정책은 조정될 필요가 있다(김영한 2008).

다섯째로 해당국가와의 FTA 체결이 가져오는 직접적 경제효과 또는 안전보장 효과 등이 크지 않더라도 지역적 진출의 교두보로서 활용할 수 있는 국가와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중남미 국가들 중 멕시코, 칠레 등과 같은 국가들은 이 지역 내에서의 경제적, 정치적 리더십 면에서 충분히 그러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 또한 동남아에 있어서 싱가포르의 위치는 이 지역의 정보와 물류, 그리고 자본의 집적지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강성구 2002).

여섯째로 상대방의 한국에 대한 협상 의지가 중요하다. 즉 한국이 필요하다고 아무 때나 협정체결이 가능한 것도 아니며, 한국이 원하는 방식으

로 모두 협정이 체결되는 것도 아니다. 제반 기준이 한국의 목표와 합치되었을 경우 상대방의 협상체결의지는 기동성 있는 FTA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될 수 있다(이영광 2007, p. 96).

#### 다. 한국 FTA의 전략특징

한국의 FTA 추진은 멕시코, 싱가포르, EFTA등 통상전략 측면에서 필요한 국가들과 중국, 미국 및 일본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나라들과는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통상전략상 필요한 나라들과는 조기에 협상을 시작하여 협상을 타결 지음으로써 한국의 자유화 의지를 세계에 알리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나라들과는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점들도 있으므로 중기적(中期的)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중·일 3국 FTA도 규모와 역외국에 미치는 무역전환효과를 고려한다면 역시 중기적 접근이 필요하며 다만 그 앞에서 한·중 또는 한·일 FTA를 사전 준비단계로 활용하여 한·중·일 FTA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과 중국에 대한 FTA는 3년 정도의 기간내에 협상을 완료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미국 역시 중기적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제조업 분야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중국과의 FTA를 위해서는 농업부문의 구조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때 FTA의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정한 관세인하기간을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미국과의 FTA시에는 농업 및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고려한다면 중국, 일본과의 FTA를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金鍾杰 2004, p. 8).

ASEAN과의 FTA는 싱가포르와의 FTA가 이미 비준되었고 원칙적인 점에서 ASEAN과의 FTA합의를 이루었으므로 비준을 위한 정책조율시 중국·

ASEAN과의 협정사항을 고려하고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의 정치경제 환경을 살피며 추진되어야 한다.

한국이 FTA를 추진할 때 WTO의 다자주의 원칙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기본적으로 WTO체제가 야기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차원의 FTA이므로 다자주의의 기본정신과 배치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한국의 FTA는 GATT 24조 규정 및 현행 WTO/DDA 논의에 부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역외국가에 배타적이지 않고 개방적인 FTA이어야 한다(박번수 2003).

향후 WTO의 New Round(DDA)의 협상내용과 방향을 고려하여 개방의 폭과 관세자유화일정을 고려하되 농업분야에서는 WTO의 농업협상이 방향 및 정도, 한국의 쌀, 관세화 문제 등을 고려해서 민감분야로서의 예외 부문을 선정해야 한다. 제조업에서도 WTO 협상에서도 공산품의 시장접근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관세 인하 속도가 늦지 않아야 한다(정광섭 2007).

FTA를 추진할 경우 가능한 한 예외부문(민감부문)을 축소하고 개방의 폭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FTA는 분업을 통한 경제후생의 증대를 추구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도 개별적 이해관계가 다르면 국가적으로도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다. 한국의 이익만을 기대하는 FTA란 제대로 가능하기 어려우므로 사람들에게 불리한 분야도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하여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WTO에서는 지역무역협정이 실질적인 모든 제품의 포함을 조건으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모든 제품은 전체 약 95% 정도이다. 농산물 등 민감부문에 대해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경우 예외조치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김동호 2009).

<표 3-1> FTA 추진시 시기적 구분과 고려사항

|                     | 대상국가  | 협상완료시기                                    | 민감부문        | 고려사항                  |
|---------------------|-------|-------------------------------------------|-------------|-----------------------|
| 통상전략<br>국가와의<br>FTA | 칠레    | 2002.10.25타결/2004.4.1발효                   | 과수          |                       |
|                     | 싱가포르  | 2004.11.29/2006.3.2발효                     |             | AFTA와의 관계             |
|                     | EFTA  | 2005.7.12타결/2006.9.1발효                    | 서비스업        |                       |
|                     | 멕시코   | 산·관·학 공동연구중                               |             | NAFTA와의 관계            |
| 대국과의<br>FTA         | 중국    | 연구기관간 공동연구                                | 농수산업        | 농업구조 조정문제             |
|                     | 일본    | 공식협상단계                                    | 제조업         | 부품소개산업<br>직접투자 유치     |
|                     | 미국    | 2007.4.2타결                                | 농업,<br>서비스업 | 서비스산업생산성<br>향상 농업구조조정 |
| 다자적<br>FTA          | 한·중·일 | 현재 3국연구기관<br>공동연구 진행                      | 농수산업        | 역외국과의 관계              |
|                     | ASEAN | 상품협정<br>2007.6.1발효<br>서비스협정<br>2009.5.1발효 | 농업          | 중·ASEAN<br>FTA관계      |

자료: 박변순(2003), "한국의 FTA전략"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p. 71

외교통상부 FTA web 자료(www.fta.go.kr)인용재정리, 2009.4

## 라. 한국의 대 중국 FTA전략

한·중 FTA가 동아시아 공동번영의 기틀 마련의 장이라는 인식이 양국 국민사이에 확산되고 인근 국가들에게까지 확고히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다. 민간 차원의 문화적 교류확대로 상호이해와 양국 간 관광

교류 등의 지속적 증진을 위한 노력 강화, 동북아 경제공동체 개념 이행을 위한 시민적 노력 확대 등이 필요하다(이호철 2007).

한국에서는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에 초래 할 충격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AMF이나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등을 통한 역내 위기관리 시스템의 구축, DDA 등 다자간 통상협력에서의 정책 공조, 반덤핑 등 무역구제제도의 투명화 등도 중요한 정책협력의 영역들이다. 또한 철강, 석유, 화학, 자동차 등 역내 과잉 생산이 우려되는 분야에서의 투자협약체 구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역내에서 과잉 중복 투자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면 FTA에 따르는 양국 산업계의 우려를 상당부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서부지역 자원 개발이나 시베리아 가스전 개발을 비롯한 자원개발과 수송망 산업에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도 양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의미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진병진 2008, p. 100).

FTA는 양자 간 무역자유화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최대화하는 정치적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경제 전반에서의 이익 극대화도 중요하지만 제조업, 농업, 서비스업 등 분야에서의 협력 증대와 이에 따른 이익 확대가 FTA의 정치적 성공에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농업이나 제조업 부분에서 양국 간 협력 간 협력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면 FTA 체결에 모멘텀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이홍지·왕윤중 2004).

양국이 진행 중인 여타 FTA 협상 일정 때문에 한·중 FTA 협상이 본격화되는 데는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계획 중인 민간 차원의 한·중 FTA 공동연구로 준비기간 동안에 한·중 FTA 장애요인들이 완화될 수 있는 환경조성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환경조성은 FTA 추진의 장애요인을 완화하고 양국의 입장에 대한 상호 이해를 깊이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양국 간 FTA 체결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서는 양국의 이해가 걸린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상호 이해에 신뢰형성과 각종 불확실성의 제거가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張致順 2002).

한·중 양국 간에는 정부 간의 합의에 따른 양국 산·관·학 공동연구 단계에 조속히 진입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정부 간의 합의 이전에도 양국의 연구기관이 공동연구를 활발히 추진함으로써 향후 공식적인 정부 간 공동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동연구는 특히 양국 간에 가로놓인 FTA 체결의 장애요인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런 장애 요인들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정인교 2005). 수많은 장애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동연구를 통해 양국의 입장을 상호간에 충분히 이해함으로써 FTA의 경제적 효과에 양국 모두 확신을 갖는 점이 중요하다. 특히 양국 정부뿐만이 아닌 학계, 업계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의 채널을 만들어 가동함으로써 협상 의지를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 제 3 절 중국 FTA의 전략

#### 가. 중국 FTA의 배경과 현황

중국은 무역대국에서 무역대국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중 하나로 FTA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수출지향의 무역전략을 실시하여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는데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으나 수출물량 증대에 치중한 결과로 과다한 자원소모, 무역마찰 심화, 국제경쟁력 향상 부진 등의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무역정책은 해외자원 확보, 무역마찰 회피, 국제경

쟁력 제고, 대미 통상정책 등에 주안점이 두어질 것이고, 이 정책들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FTA는 중국이 이러한 정책 목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된다.

중국은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국제 분업체계상 위상 제고, 수출상품의 고부가가치화, 대외무역구조의 고도화 등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FTA를 활용하고 있다. 홍콩·마카오와의 FTA의 일종인 CEPA가 대표적인 예이다(姜宪九, 2008).

이처럼 중국이 FTA를 추진하면서 기대하는 경제적 이익은 다양하다. 일례로 중국의 상무부 등 관련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ASEAN과의 FTA추진으로 자국이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을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열거하고 있다.

첫째, 중국은 제조업부문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ASEAN과의 FTA를 통해 수출증대 및 수출지역 다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둘째, 동남아시아는 세계에서 화교가 가장 집중된 지역이므로 중국이 이 화교들을 매개로하여 ASEAN과 FTA를 추진하는 것은 절차상으로도 실리적으로 매우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셋째, 동남아시아는 중국 서부지역의 주요 수출시장으로서 서부대개발 전략 추진에 활용할 수 있다.

넷째, ASEAN은 장차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중점지역이 될 것이다.

다섯째, 일본경제의 장기적인 불황 여파로 인해,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필두로 하던 국제분업구조가 약화되었으므로, 중·ASEAN FTA는 장차 중국 중심의 역내 국제 분업패턴 구축에 유리하다.

여섯째, 중·ASEAN FTA는 지역주의 확산이 중국의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세계화에 따른 위험에 대응하는 데에도 유리하다.

일곱째, 중·ASEAN FTA는 인구 17억 명의 세계최대 자유무역지대로서 이지역의 경제력과 국제무대 발언권을 향상시켜 장차 ASEAN, EU와 함께 세계3대 경제권을 형성하도록 한다. 중국은 이를 통해 동남아의 역외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저하시키고 역내에서 미국, 일본을 능가하는 정치·경제적 영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孙艳君 2007).

한편 해외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중국의 대외경제정책의 주요한 과제에 속하며 중국은 이를 위해 '췌우추취(走出去)'전략과 FTA 정책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1990년대 말부터 '췌우추취'라는 용어가 등장했으며, 이는 '인진라이(引進來, 외자유치)'와 함께 현재중국의 대외경제정책을 구성하는 중요한 전략이다. 중국의 '췌우추취'전략은 기업의 해외진출, 즉 해외투자와 다국적 경영(외국기업에 대한 M&A 포함)을 장려함으로써 이를 통해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는 물론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촉진, 선진기술 도입, 부족한 재화, 특히 전략적인 자원·에너지 공급 확보 등을 도모하고 있다(홍정륜 2007).

이와 같이 중국이 ASEAN, 호주, 칠레, SCO, GCC 등과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은 이 국가·지역들의 광물자원 매장량이 풍부한 것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최근 중국이 FTA의 예비단계로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경제무역협력구(海外經濟貿易合作區)'는 주로 자원부국에 집중적으로 설립되고 있다. 중국은 2006년 초부터 해외경제무역협력구를 건립하기 시작했으며 금후 50개의 '해외경제무역협력구'를 걸립할 계획이다. 2006년 6월 현재 해외경제무역협력구 설립 지점으로 선정된 국가는 몽골, 북한, 러시아, 카자흐스탄, 나이지리아 등이다. 이런 국가들은 모두 광물자원이 풍부한 나라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玄可美 2008).

## 나. 중국 FTA전략의 동기

중국의 외교 안보적 이익의 관점에서 중국이 중시하는 요인으로는 지역 리더십 강화, 대미 견제와 차별화 등을 들 수 있다. 즉 중국은 자국 중심의 ‘동아주의(Sino-centric East-Asianism)’를 형성하면서 미국의 동아시아지역내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잠식시키며 장기적으로는 EU, NAFTA에 견줄 만한 중국 중심의 유라시아 FTA형성을 목적으로 하여 FTA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Hale, D. and Hale L. H. 2003).

다음으로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중국이 FTA를 추진하는 동기로는 해외 에너지 원자재 확보, 무역마찰 회피(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대(對)서구 우회수출 등), MES 승인 유도, 산업경쟁력 제고, 미국의 통상압력에의 대응, 서부대개발 및 동북진흥의 촉진, 해외 화교와의 연계 강화,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동기들은 보다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이분하여 볼 수 있다. 에너지 원자재 확보, 새로운 시장의 개척 육성, 대(對)서구 우회수출, 산업 경쟁력 제고, 서부·동북 개발 촉진 등은 중국이 FTA를 추진하면서 기대하는 보다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동기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MES 인정 유도, 미국 통상압력에의 대응, 해외 화교와의 연계 강화,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등은 상대적으로 간접적이며 이차적인 동기로서 FTA를 추진하면서 부차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으로 볼 수 있다(Baier, 2004).

상술한 바를 종합하면 중국이 FTA를 추진함에 있어 중시하는 보다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동기나 목적은 지역 리더십 강화 및 대미 견제와 차별화 해외 에너지 원자재 확보, 새로운 시장 개척 육성, 대(對)서구 우회수

출, 산업 경쟁력 제고, 서부·동북 개발 촉진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주요 동기가 중국이 그동안 추진해온 FTA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우선 중국의 FTA 추진동기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국가(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첫째, 외교 안보적인 목적으로 미국을 견제하면서 중국 중심의 지역주의를 강화하려는 의도는 중국의 주변국들을 중심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이 자국과 인접한 지역(국가)과의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심지어 아프리카와 남미에서도 ‘조화외교’의 기치 아래 미국과 차별화된 방향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FTA 추진 상대국가(지역)로부터 에너지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려는 동기는 ASEAN, 남아시아, SCO, GCC, 호주, 남미, SACU, 아이슬란드(알루미늄 풍부) 등 천연 광물자원이 풍부한 나라에서 강하게 나타난다(刘重力·盛伟 2008).

셋째, 산업경쟁력 제고를 촉진하기 위한 FTA 추진 동기는 주로 중국보다 공업화가 선진적이거나 서비스산업이 발전되어 있는 국가들과의 추진에서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콩,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과의 FTA에서는 주로 이 국가들의 발달한 서비스산업으로부터 자본, 경험, 기술을 도입해 중국의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 산업구조 조정, 관리방식 개선 등을 촉진하는 효과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한국, 대만, 홍콩 등과의 FTA에서는 이 국가들의 발달된 제조업분야와의 교류 확대를 통해 관련 산업의 효율증진효과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넷째, 새로운 시장의 개척 육성을 추구하는 것은 인도, 브라질,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미래의 거대한 유망시장으로 빠르게 부상하는 국가들

이 주된 대상이다. 중국은 이 국가들을 대륙별 수출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은 개도국 시장이 노동집약적 제품의 생명주기상 성장기에 있어 수요가 비약적으로 증가할 수 있고 중국제품이 개도국의 소득수준 및 소득구조의 특성에 잘 부합하며 관련 기술과 설비, 부품의 수출 증가에도 유리하다는 점을 주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시장에 대한 우회수출을 목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동기는 거의 모든 FTA 추진 대상국가(지역)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호주,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등에 대해서, 중국은 이 국가들이 다른 선진국과 FTA를 맺고 있는 점을 활용해 이 국가들을 통한 서구시장으로의 우회 수출 효과를 도모하고 있고, ASEAN, 남아시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에 대해서는 주로 이 국가들의 선진국 수출쿼터를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홍콩을 통한 서구 우회 수출은 자유무역항인 홍콩의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의 홍콩 수출의 상당 부분이 서구시장을 최종 시장으로 하고 있는 사실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玄可美 2008).

#### 다. 중국 FTA 전략의 특징

중국 FTA의 전략특징은 아시아지역과 아태지역이 지역경제협력의 중점 지역이다. 현재 중국이 이미 체결한 최초의 FTA, 이미 실시한 최초의 관세우대협정과 최초의 FTA는 모두 동아시아지역이다. 중국이 이미 협의했거나 협상 및 검토 중에 있는 FTA를 보면 SACU,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칠레, 페루, 남아프리카공화국 외에 나머지는 모두 아태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이는 중국이 경제 글로벌화에 융합되는 과정에서 아시아지역이 갈수록 중국 경제와 가장 긴밀히 연계된 지역 중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아태지역은 중국의 주요 외자 유치 대상국이자 여러 가지 주요 에너지 및 광산자원 제공지역으로 향후 중국의 지역경제협력 전략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점점 더 부각될 것이다.

산업 중진국과 개도국이 선진국보다 많다. 중국과 이미 FTA를 체결 또는 협상 중인 국가(지역)를 보면 이미 FTA를 체결한 아세안 10개국, 파키스탄, 칠레 등을 포함해 현재 협상 중인 GCC 6개국, 인도 FTA 타당성연구를 진행 중인 한국, SACU 5개국 남미공동시장(MERCOSUR)등 개도국과 산업 중진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지역으로는 뉴질랜드, 호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및 홍콩/마카오 밖에 없다. 현재 중국의 FTA협상 대상국은 대부분 신흥시장이며 기본적으로 아태지역 경제권에 속해 있다. 이는 아태지역의 무역이 중국 전체 수출입에서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張建平 2008, p. 35).

## 라. 중국의 대 한국 FTA전략

한·중 FTA 추진을 위한 과제 발굴을 위해서는 한·중 FTA의 지향 목표를 설정함이 최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한·중 FTA는 유럽이나 미주지역과 대등한 위치를 점유할 수 있는 동북아의 지역 경제 통합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중 FTA가 우선적으로 NAFTA와 같은 형태의 시장 통합 형성을 최소한의 목표로 삼아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최소한의 역내에서의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공급과 소비가 보장될 수 있는 NAFTA 수준의 통합에서 최대한 EU와 같은 형태의 광범위한 통합으로까지 목표를 설정함이 바람직하다. 이에 상응한 개발 정책의 조화역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1997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은 위기관리에 있어 공동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 형성이

외화 스왑협정의 체결을 이끌어 이후에 추진되다가 실현되지 못한 AMF의 설립 논의를 재개할 의미가 있다고 본다(최인현 2004).

강대국 간 에너지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동북아 역내의 에너지 자원을 공동 개발하는 것은 공동의 경제적 이익과 지역, 국가 간의 유대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특히 서시베리아 가스관 개발을 비롯한 이 지역자원 개발과 수송망 사업에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한·중 간 검토가 필요하다. 만약 한국을 비롯한 해당 지역 국가의 자본과 기술이 투입된다면 진척이 상당히 앞당겨 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해 갈 수 있는 또 다른 분야는 환경협력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업에 한국의 참여는 아직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는 있지만 향후 한·중 양국이 환경 분야에 대하여 좀 더 깊은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黃毅青 2007).

한·중 양국 모두 정보통신산업은 고용창출,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등에 있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이다. 특히 이 분야에서 양국 간의 기술 수준에 객관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비교우위 분야가 상이하기 때문에 양국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양국 모두에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이다. 인터넷, 정보 통신 분야는 일사천리로 변화를 시도하는 분야이다. 또한 기술 표준들이 서구 국가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를 전제로 양국의 협력은 이 분야에서의 동북아 지역 국가들의 입지를 강화시켜 줄 수 있다고 본다.

양국 간 분업 구조의 정착을 위해서는 양국의 산업 구조의 개편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 바 이를 위한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산업 구조조정을 위하여 국가 간에 협력하여 추진한다는 것은 용이치 않은 것으로 이의 실행을 위하여 상호 신뢰의 분위기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한·중 양국 간 신뢰 구축의 출발점이 가능한 분야에서 가능성과 실효성이 상대적

으로 높은 분야는 동아시아의 과다 유탄설비를 공동의 노력으로 해소하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과 중국 정부는 한·중 FTA추진에 있어 그 자체가 대외 경제 정책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그것은 장기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세계적 차원의 다자주의적 자유무역체제의 완성에 기여하는 초기 단계의 정책 목적임을 분명히 하고 이에 기반으로 단기 및 중장기적인 목표를 체계적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정광섭 2007).

단기적으로는 지역 내의 높은 무역장벽을 철폐하여 역내 무역 활성화로 인한 이익을 누릴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다자체제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입장을 일관성 있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미국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향후 세계 경제 환경에서 중국은 한국 및 미국과의 경제 협력 심화에 대한 균형 있는 정책 방향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NAFTA 등을 통하여 지역주의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지역주의 형성에 반대할 명분이 없거나 미약하더라도 한·중 FTA와 같은 동아시아 내 대규모 경제협력체 구축을 반대할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기는 시기상조이다. 미국은 동북아와 밀접한 군사 안보적 이해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 내 지역주의의 움직임에 대해 그들의 표면적인 지지 입장과는 달리 군사적으로 대치 관계에 위치한 중국이 포함된 FTA에 대해 이중적인 입장을 보일 확률이 높다. 때문에 FTA 추진과 관련하여 한·중 양국은 미국과의 경제 및 정치, 외교적 관계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정인교·조정란 2008).

또한 한·중 FTA 체결은 일본을 포함하는 3국 상호 간 호혜적인 경제트라이앵글이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우뚝 서도록 만드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IT 제품, 철강 제품이 몰려올 경우 어려움을 겪겠지만 중국은 광활한 시장을 배경으로 '소화불량'

에 걸릴 우려는 없다. 또한 상대적으로 시장이 좁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농산업물이 밀려들면 농업분야에서 어느 정도 타격을 입겠지만 이를 전제로 사전에 이에 대비하고 보완책을 만들면 얼마든지 양국이 win-win 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黃毅青 2007).

한·중 FTA는 공격적이고 경쟁적인 성격의 FTA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중 양국이 FTA를 체결할 경우 양국을 포함한 동북아 경제는 트라이앵글을 형성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한·중·일 3국의 공동 FTA 그리고 동북아 경제협력으로 가는 길이 될 것이다.

#### 제 4 절 한·중 FTA전략의 비교

한국은 자국의 FTA전략을 3단계로 나누었다. 1단계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것으로 이미 완성되었다. 2단계는 유럽 ASEAN과 FTA를 체결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다. 3단계는 중국과 FTA를 체결 하는 것이다. 중국과의 FTA를 유럽과 미국 뒤에 체결하는 것은 선진화된 무역제도를 학습하여 무역제도의 선진화, 국내경쟁력의 제고, 경제성장의 촉진, 한국기업의 생산능률 제고 등에 그 목적이 있다. 아울러 일본과 중국 무역에서의 심한 의존성에서 벗어나 미국시장에 미리 진출하여 미국의 투자를 이끌어냄으로서 국내의 경제 환경을 개선시키고, 중국과 일본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이다.

이 와중에 한국의 FTA전략에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 FTA는 원거리 국가에서 근거리국가 순서로 체결하고, 소국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대국 외교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ASEAN이 동아시아통합 과정의 주도권을

얻은 것처럼 한국도 동북아시아공동체 과정에서 주도권을 얻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국은 “중재자”의 역할로서 동북아시아공동체의 핵심국가로 자리하여 중·일간의 FTA전략 방향을 주도할 것이며, 이를 통해 거대한 무역 이익을 얻으려 하고 있다.

중국은 ASEAN과의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통하여 동아시아공동체 진행 과정에서 비교적 유리한 위치를 점하였다. 이 때문에 현재 중국의 FTA 주된 전략은 동아시아공동체 과정, 특히 일본과의 FTA 체결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중국은 동아시아지역의 경제공동체과정을 점차적으로 심화시켜 나가야 하고, "아세안+3"의 기초하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가장 시급한 것은 먼저 동북아시아공동체 과정을 완성하는 것으로 특히 한·중·일의 자유무역지대 창설이다. 이는 APEC과 같이 구조적으로 산만한 조직을 구성한다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중국은 한국과의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화답하여 2007년 5월 쌍방간 처음으로 산·학·관 공동워크숍을 개최하였고, 2008년 세 번에 걸쳐 이와 같은 회의를 열었다. 2008년 후진타오 주석은 올림픽이 끝난 직후 곧바로 방한하여 이명박 대통령과의 한·중정상회담을 통하여 한·중연합성명을 발표하였고 한·중관계가 양국 모두에게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일치시킴으로써 양국의 「전략적동반자관계」를 전면적으로 추진할 것을 협의하였다. 또한 2008년 말 제1차 장관급 전략회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한·중자유무역협정 체결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한·중·일 FTA는 한·중 FTA 협상을 통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였다(人民网 <http://www.people.com.cn/> 검색일:2009.4.23).

## 제 IV장 한·중 경제관계와 경쟁력분석

### 제 1 절 한·중 무역관계

한국의 대외무역 통계에 따르면 양국이 수교했던 1992년 63억 달러 수준이었던 양국간 무역액은 2008년에 1683.9억 달러에 달하였는데, 이는 16년 동안 26배 증가한 것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23%에 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sup>4)</sup> 특히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이 수입보다 더 빨리 증가하여 연평균 26% 증가한 반면, 수입은 연평균 20% 증가하였다(<표 4-1>참조). 특히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은 2003년, 2004년에 연 40% 이상의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이다가 2005년부터 그 증가율이 크게 하락하여 2006년부터는 연 1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대 중국 수입은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30%수준의 높은 증가율을 지속하면서, 2007년 이후 대 중국 수출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한·중 무역의 증가율은 한국 총무역의 증가율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서 한국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급상승하였다. 즉 1995년과 2000년에 각각 총수출의 7.3%, 10.7%를 차지하던 대중국 수출은 2006년에는 695억 달러로 총수출의 21.3%를 차지하게 되었다. 수입의 경우에도 1995년과 2000년에 각각 총수입의 5.7%, 8.0%에 불과하던 대 중국 수입은 2006에 486억 달러로 총수입의 15.7%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은 2003년부터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제1위 수출 대상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수입에 있어서도 2006년부터 일본에 이어 제2위 수입대상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sup>5)</sup> 그런데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은 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추

4) 한편 중국 측 통계로는 양국간 무역이 1992년 51억 달러에서 2006년 134억달러로 26배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이 26%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적인 부분이 존재하는데, 주로 홍콩을 경유한 간접수출이다. 2008년 한국은 총수출의 5.8%에 해당하는 230억 달러를 홍콩으로 수출하였는데, 이중 상당 부분은 중국으로 재수출되고 있는 실정이다.<sup>6)</sup>

이 요인을 고려한다면 중국은 실질적으로 한국의 총 수출의 약 25% 이상을 흡수하는 최대 수출시장이다.



---

5) 2007년 상반기 한국의 대중국 수입 전년 동기대비 34% 증가하여 총수입의 17.6%에 달하는 299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처음으로 중국이 일본을 앞서 한국의 제1위 수입 대상국으로 등장하였다.

6) 홍콩을 경유한 재수출이 한국 통계에 따른 대 중국수출액과 중국 통계에 따른 대 한국 수입액의 괴리를 초래하는 핵심요인이다. 즉 이 거래를 한국의 무역통계는 홍콩에 대한 수출로, 중국의 무역통계는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분류함으로써 두 통계치의 포함 범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한편 한국의 홍콩을 경유한 중국산 상품의 수입의 수입은 미미한데, 이 부분은 한국 통계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포함된다.

<표 4-1> 한·중 무역의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 한국측 통계    |           |             | 중국측 통계    |           |             |
|------|-----------|-----------|-------------|-----------|-----------|-------------|
|      | 대중국<br>수출 | 대중국<br>수입 | 한국측<br>무역수지 | 대한국<br>수입 | 대한국<br>수출 | 중국측<br>무역수지 |
| 1980 | 15.4      | 25.6      | -10.2       | n/a       | n/a       |             |
| 1983 | 4.8       | 69.3      | -64.5       | n/a       | n/a       |             |
| 1985 | 40.3      | 478.4     | -438.1      | n/a       | n/a       |             |
| 1988 | 372.2     | 1,387     | -1,015      | n/a       | n/a       |             |
| 1990 | 584.9     | 2,268     | -1,683      | 236       | 433       | 197         |
| 1991 | 1,003     | 3,441     | -2,438      | 1,066     | 2,179     | 1,113       |
| 1992 | 2,655     | 3,725     | -1,071      | 2,623     | 2,438     | -185        |
| 1993 | 5,151     | 3,929     | 1,222       | 5,360     | 2,860     | -2,500      |
| 1994 | 6,202     | 5,462     | 740         | 7,318     | 4,376     | -2,942      |
| 1995 | 9,143     | 7,401     | 1,742       | 10,288    | 6,688     | -3,600      |
| 1996 | 11,377    | 8,538     | 2,839       | 12,485    | 7,527     | -4,958      |
| 1997 | 13,572    | 10,116    | 3,456       | 14,885    | 9,136     | -5,749      |
| 1998 | 11,943    | 6,483     | 5,460       | 15,020    | 6,232     | -8,788      |
| 1999 | 13,648    | 8,866     | 4,818       | 17,232    | 7,817     | -9,415      |
| 2000 | 18,454    | 12,798    | 5,656       | 23,207    | 11,286    | -11,921     |
| 2001 | 18,190    | 13,302    | 4,888       | 23,395    | 12,544    | -10,851     |
| 2002 | 23,754    | 17,400    | 6,354       | 28,581    | 15,508    | -13,073     |
| 2003 | 35,110    | 21,909    | 13,201      | 43,160    | 20,104    | -23,056     |
| 2004 | 49,763    | 29,585    | 20,178      | 62,165    | 27,809    | -34,356     |
| 2005 | 61,915    | 38,648    | 23,267      | 76,874    | 35,117    | -41,757     |
| 2006 | 69,459    | 48,557    | 20,903      | 89,811    | 44,558    | -45,253     |
| 2007 | 81,985    | 63,028    | 18,957      | 84,622    | 45,078    | -39,544     |
| 2008 | 91,389    | 76,930    | 14,459      | 112,190   | 73,920    | -38,270     |

자료: 한국 측 통계 무역협회 KITA, 중국 측 통계 중국해관 통계.

김시중, 『한·중경제관계의 평가와 한·중FTA전망』, 2007.12, p. 137참조

한편 중국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2008년도 대한국 수입은 1121억 달러로 총수입의 11.3%, 대한국 수출은 739억 달러로 총수출의 4.6%를 차지

하였다. 중국의 수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7.8%에서 2000년 10.3%로 완만하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해온 반면, 중국의 수출에 있어서의 한국의 비중은 1990년대 중반 이후 4.5%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무역 대상국 중 한국의 순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8년에 한국은 대만을 추월하여 일본에 이어 중국의 제2위 수입대상국이 되었으며, 수출에 있어서는 홍콩, 미국, 일본에 이어 제4위를 차지하였다. 즉 홍콩이라는 특수 지역을 제외할 경우 한국은 중국의 최상위 무역 대상국이지만 그 비중은 중국이 한국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매우 낮다. 한편 쌍무적 무역수지에 있어서는 한국이 1993년 이후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해 왔다. 한국 측 통계를 기준으로 한국의 대상국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수십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2002년 이후 크게 증가하여 2005년에 233억 달러로 정점에 달하였다. 그러나 2006년에는 209억 달러, 2007년 상반기에는 80억달러로 최근에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은 2003년부터 매년 한국의 최대무역흑자 대상국이 되고 있다. 한편 중국의 통계에 따른 중국의 대상국 무역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내 2006년에 450억 달러에 달하였고, 한국은 대만에 이어 제2위 무역적자 대상국의 위치를 차지하였다. 다만 중국 측 통계에서도 2007년에 들어서 대 한국 무역수지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위 기간 중에 양국간 무역이 양적으로 급증했을 뿐 아니라 무역상품의 구조 및 기타 양국 무역의 특성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났다. 먼저 무역상품의 구조에 있어서는 대체로 산업간 무역(inter-industry trade)중심의 구조로 변화되고 있다.

1990년대에는 한국이 주로 농산물, 광물연료(석탄 등), 섬유 등을 수입하는 대신, 철강, 석유화학을 수출했으나, 근년에는 양국의 수출입 모두에 있어서 산업용 전자제품 및 전자부품, 철강, 가정용 전자제품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광범한 범위에 걸쳐 나타나는 산업내무역이 중심이 되는 구조로 전환되었다(<표 4-2, 4-3>참조).

다만 양국 간의 산업내 무역은 경제발전 단계가 비슷한 국가들 사이에 나타나는 제품차별화에 기초한 '수평적 산업내 무역(horizontal intra-industry trade)'이라기보다 같은 산업 내에서 품질이나 기술수준 혹은 가격에 차이가 나는 상품들의 거래인 '수직적 산업내 무역(vertical intra-industry trade)'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2> 한국의 대중국 10대 수출상품의 변화 추이

| 순<br>위 | 1995<br>품목(증가율)*  | 2000<br>품목(증가율)*  | 2005<br>품목(증가율)*  | 2008<br>품목(증가율)*  |
|--------|-------------------|-------------------|-------------------|-------------------|
| 1      | 석유화학제품<br>(93.5)  | 석유화학제품<br>(38.9)  | 전자부품<br>(73.5)    | 전자부품<br>(8.7)     |
| 2      | 직물<br>(49.0)      | 전자부품<br>(65.9)    | 산업용전자제품<br>(2.7)  | 석유화학제품<br>(6.8)   |
| 3      | 철강제품<br>(-15.2)   | 광물성연료<br>(41.5)   | 석유화학제품<br>(22.6)  | 산업용전자제품<br>(-6.8) |
| 4      | 가죽 모피제품<br>(27.0) | 직물<br>(16.9)      | 기초산업기계<br>(78.0)  | 광물성연료<br>(63.1)   |
| 5      | 산업기계<br>(32.6)    | 철강제품<br>(23.2)    | 철강제품<br>(10.7)    | 기초산업기계<br>(36.7)  |
| 6      | 광물성연료<br>(65.6)   | 산업용전자제품<br>(83.2) | 수송기계<br>(30.1)    | 수송기계<br>(29.7)    |
| 7      | 섬유원료<br>(42.8)    | 가죽 모피제품<br>(25.8) | 광물성연료<br>(23.1)   | 철강제품<br>(27.5)    |
| 8      | 가정용전자제품<br>(76.4) | 가정용전자제품<br>(44.0) | 가정용전자제품<br>(27.1) | 비철금속제품<br>(-6.9)  |
| 9      | 수송기계<br>(10.5)    | 정밀화학제품<br>(29.3)  | 직물<br>(7.5)       | 산업기계<br>(7.1)     |
| 10     | 제지원료 종이<br>(46.9) | 산업기계<br>(40.3)    | 비철금속제품<br>(30.4)  | 가정용전자제품<br>(8.5)  |

\* ( )는 전년에 비해 증가한 비중(%)을 의미.

<표 4-3> 한국의 대중국 10대 수입산품의 변화 추이

| 순<br>위 | 1995<br>품목(증가율) * | 2000<br>품목(증가율) *   | 2005<br>품목(증가율) *   | 2008<br>품목(증가율) * |
|--------|-------------------|---------------------|---------------------|-------------------|
| 1      | 철강제품<br>(295.0)   | 전자부품<br>(25.7)      | 산업용전자제품<br>(39.1)   | 철강제품<br>(72.7)    |
| 2      | 직물<br>(14.0)      | 농산물<br>(85.8)       | 철강제품<br>(54.8)      | 전자부품<br>(31.4)    |
| 3      | 광물성연료<br>(15.8)   | 광물성 연료<br>(63.2)    | 전자부품<br>(24.4)      | 산업용전자제품<br>(6.6)  |
| 4      | 농산물<br>(-51.8)    | 산업용전자제품<br>(59.2)   | 섬유제품<br>(9.0)       | 광물성연료<br>(58.5)   |
| 5      | 섬유제품<br>(44.5)    | 섬유제품<br>(74.2)      | 광물성 연료<br>(9.8)     | 섬유제품<br>(-5.6)    |
| 6      | 정밀화학제품<br>(53.8)  | 철강제품<br>(61.1)      | 농산물<br>(54.2)       | 정밀화학제품<br>(25.8)  |
| 7      | 섬유사<br>(29.1)     | 직물<br>(18.8)        | 비철금속제품<br>(20.3)    | 비철금속제품<br>(-5.2)  |
| 8      | 가정용전자제품<br>(71.6) | 중전(重電) 기기<br>(55.8) | 전자용전자제품<br>(20.9)   | 가정용전자제품<br>(10.5) |
| 9      | 비철금속제품<br>(48.5)  | 정밀화학제품<br>(19.2)    | 정밀화학제품<br>(28.8)    | 농산물 (-17.2)       |
| 10     | 신변잡화<br>(47.3)    | 가정용전자제품<br>(44.8)   | 중전(重電) 기기<br>(23.2) | 중전(重電)기기<br>(0.6) |

\* ( )는 전년에 비해 증가한 비중(%)을 의미.

품목 구분: MTI 2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KITA database

또한 <표 4-2, 4-3>에 나타난 무역상품의 변화를 살펴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교역 상품에 체화된 기술 수준이 전반적으로 뚜렷하게 상승해 왔으며, 그 상승 정도는 한국의 수입상품에서 더 크게 발견된다.

한편 양국간 교역 상품구조와 관련한 또 하나의 특징은 중간재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의 대 중국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

중은 80% 내외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표 4-4>참조). 이는 중국의 총수입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약 60% 수준보다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서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의 특성을 드러내주고 있다. 이 비중은 한때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 중간재 수출이 급증하면서 반등하고 있다. 한편 중간재 수출 중에서는 반제품의 비중이 하락하고 부품 및 부분품의 비중은 상승함으로써 중국내 부가가치의 상승 현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점진적으로 상승하던 최종재의 비중은 최근중간재 수출의 급증에 따라 다소 하락하고 있다. 근년에 총수출의 20% 내외를 차지하는 최종재 수출 중에서는 자본재의 비중이 더 높게 상승하고 있는 반면, 소비재의 비중은 점차 하락하면서 3%를 조금 상회하는 낮은 수준에 있다.

<표 4-4>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생산단계별 분포  
(단위:%)

| 수 출    | 1992 | 1995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
| 일차산품   | 0.5  | 0.5  | 0.4  | 0.5  | 0.5  | 0.6  | 0.6  | 0.7  |
| 중간재    | 88.8 | 80.4 | 84.9 | 76.1 | 76.5 | 79.7 | 82.0 | 79.3 |
| 반제품    | 84.0 | 72.8 | 65.2 | 52.0 | 46.2 | 43.9 | 42.0 | 43.3 |
| 부품·부분품 | 4.8  | 7.5  | 19.5 | 24.1 | 30.3 | 35.8 | 40.0 | 35.9 |
| 최종재    | 10.7 | 19.1 | 16.2 | 23.4 | 23.0 | 19.7 | 17.3 | 20.0 |
| 자본재    | 7.3  | 12.6 | 11.1 | 18.5 | 18.6 | 16.2 | 14.0 | 16.7 |
| 소비재    | 3.5  | 6.5  | 5.1  | 4.9  | 4.4  | 3.5  | 3.3  | 3.3  |

출처: 한국무역협회 database

김시중(2007) “한중경제관계의 평가와 한중FTA 전망”에 재인용

<표4-5>한국의대 중국 수입의 생산단계별 분포

(단위:%)

| 수입     | 1992 | 1995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
| 일차산품   | 37.1 | 14.2 | 12.9 | 12.6 | 12.5 | 9.1  | 9.4  | 6.3  |
| 중간재    | 50.3 | 64.4 | 48.9 | 48.2 | 48.0 | 52.8 | 54.7 | 57.4 |
| 반제품    | 48.6 | 58.8 | 32.0 | 31.4 | 29.9 | 34.2 | 35.3 | 36.5 |
| 부품·부분품 | 1.6  | 5.5  | 16.9 | 16.8 | 18.1 | 18.6 | 19.4 | 20.9 |
| 최종재    | 12.6 | 21.4 | 38.2 | 39.1 | 39.4 | 38.1 | 35.8 | 36.2 |
| 자본재    | 2.6  | 4.0  | 14.5 | 14.9 | 16.9 | 18.4 | 18.5 | 18.7 |
| 소비재    | 10.0 | 17.4 | 23.6 | 24.3 | 22.5 | 19.8 | 17.3 | 17.5 |

출처: 한국무역협회 database

김시중(2007) “한중경제관계의 평가와 한중FTA 전망”에 재인용

이와 같이 한국의 대 중국 수출에 있어 중간재의 비중이 높은 것은 한·중 무역이 글로벌생산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음을 반영한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WTO 등을 통한 무역 자유화 진전에 기초한 세계화(globalization)가 진행되면서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등장하였다.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세분화된 가치사슬의 각 단계를 최적 배치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 저렴한 공업용지, 중앙 및 지방정부의 각종 혜택 등에 기초하는(지만수, 2007) 이러한 전통적 요소에 더하여 지난 10여 년에 걸쳐 7000억 달러에 달하는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중국내 주요 지역에 많은 수의 외자기업 및 관련된 중국기업들로 구성된 산업 집적지(cluster)가 형성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추가적인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집적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결과 중국이 섬유, 신발 등 전통적 노동집약 산업 뿐 아니라 집적의 이익이 큰 조립형 성격의 전기전자 산업에서 세계적인 수출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시장 특히 선진국 시장을 향한 최종 소비재의 생산기지로 등장하였다. 이와 연계하여 한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최종 생산

기지를 중국으로 이전하면서 동시에 핵심 중간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당당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미국, 유럽 등 세계로의 수출이 급증하면서 한국 등 주변국은 중국으로 중간재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한국의 대 중국 수입 상품에 있어서도 중간재의 비중이 가장 높지만 60%에 못 미치며, 최종 소비재의 비중은 근년에 하락하고는 있지만 17%를 상회하고 있다. 농수산물도 중심이 되는 1차산품의 수입은 30억 달러를 상회하여 절대액은 적지 않지만 그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6% 수준을 기록하였다. 다만 농수산물의 경우 무역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보따리상, 여행객 반입 및 밀수 등을 통해 상당한 추가적 수입이 존재한다.

한·중간 무역에서 중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기업들이 큰 비중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국의 무역통계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4년 중국의 대한국 수입의 72.8%가 외자계 기업에 의한 것이며 대한국 수출의 경우에도 55.5%가 외자기업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였다. 이 현상 역시 위에서 언급한 중국에 형성된 전 세계적 생산 네트워크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한국 기업이 투자한 현지법인이 핵심 원자재를 모기업에서 수입하고, 중국에서 최종 가공한 후 미국 등 제3국 시장으로 수출하거나 한국으로 역출하는 기업내 무역(intra-firm trade)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최근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 진전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국내 생산을 통한 한국산 수입의 대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특히 직물, 철강, 전자 등의 업종에서 수입대체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최근 한국의 대 중국 수출보다 수입이 더 빠르게 증가하며 무역흑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나, 앞에서 살펴본 수출입 상품구조 변화에 의해 확인된다. 예를

들어 10대 수출상품 중 1995년에 2위이던 직물은 2000년에 4위, 2005년에 9위로 하락한 반면, 10대 수입상품 중 1995년에는 포함되지 않고 2000년에 4위였던 산업용전자제품이 2005년에는 1위를 차지였다(김시중 2007).

## 제 2 절 한·중간 투자관계

한·중 양국간 경제교류에 있어서 무역과 더불어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해외직접투자(FDI)이다. 해외직접투자는 자금을 외국으로 가지고 가서 해당되는 인허가를 받고 공장(혹은 산업정)을 매입하거나 임차하며 종업원을 고용해서 상품을 생산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획득하고자 하는 경제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직접투자는 국가간에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무역에 비해 더 복잡하고 또 지속성을 갖는 초국경 경제 행위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대 중국 직접투자의 추이가 <표 4-5>에 나타나 있는데, 시기에 따라 변동을 보이면서도 기본적인 증가 추세를 유지해 왔다. 무역과 마찬가지로 양국 통계가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지만 그 괴리의 정도는 일정하지 않다. 투자액 측면에서 중국측 통계는 한국측 통계의 최대 3.5배(1999년)에서 최소 1.2배(2006년)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두 통계치의 괴리 원인은 여러 가지로 추측 되는데, 기존 투자기업의 재투자나 홍콩 등 제3국 경유 투자 그리고 일부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미신고 투자 등이 중국측 통계에만 잡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중에는 중국 자본이 외자에 적용되는 특혜를 누리기 위해 외국인투자의 형식을 빌리는 소위 가외자(假外資, round-tripping)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 중국 투자를 몇 단계라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수교 이전의 탐색기, 1992-1996의 제1차 급증기, 1997-2001의 정체기, 2002-2005의 제2차 급증기, 이후의 안정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중국측 통계에 따르면 2005년 이후 한국의 대중 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한국측 통계로는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제1차 급증기는 1992년의 한·중 수교 및 등샤오펑의 남순강화와 더불어 나타났던 중국경제 급성장 시기가 맞물리면서 나타났다, 제2차 급증기는 중국의 WTO가입과 연계된 대외개방 확대 및 경제성장률의 상승과 연계되어 나타났다. 중국측 통계에 나타나는 최근의 투자 정체는 중국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책적 특혜 축소, 가공무역에 대한 금지 및 제한 확대, 임금 상승 및 노동 관련 규제의 강화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대 중국 직접투자는 2008년 말까지 누계로 약 3만7천 건, 360억 달러(한국 수출입은행 통계 기준)에 달하여, 건수 및 금액 모두에서 중국은 한국의 최대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이 되었다. 중국에 대한 투자는 건수로는 전체 해외투자의 50% 가까이, 금액으로는 약 25%를 차지하는 것이며, 제2위 투자 대상국인 미국에 대한 투자에 비해 건수로는 2배 이상, 금액으로는 약간 초과하는 것이다.

한편 중국측 통계에 따르면 위 수치의 2배 이상인 약 350억 달러의 투자가 한국으로부터 유입되었으며, 3만 건 이상의 투자가 실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5년간 투자액을 기준으로 한국은 홍콩, 버진 아일랜드, 일본에 이어 중국에 대한 제4위 투자국인데, 중국과 특수 관계인 홍콩과 조세 회피지역인 버진 아일랜드를 제외할 경우 한국은 일본과 최상위를 다투는 투자국이다. 홍콩과 버진 아일랜드를 제외할 경우 한국은 2004년에는 중국에 62억 달러(중국 FDI 유입액의 10.3%)를 투자한 제1위 투자국이었으며, 2007년과 2008년에는 각각 60억 달러(총 FDI의 8.6%)와 39억 달러

(총 FDI의 6.2%)의 투자액으로 일본에 이어 제2위 투자국이었다. 투자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한국은 일본, 미국, 대만과 더불어 최대 투자국 그룹에 속한다.

<표 4-6> 한국의 대 중국 직접투자 추이

(단위: 건, 백만 달러)

| 연 도  | 신고건수  | 신규법인수 | 신고금액  | 송금횟수  | 투자금액  |
|------|-------|-------|-------|-------|-------|
| 1992 | 314   | 170   | 223   | 356   | 141   |
| 1993 | 752   | 382   | 631   | 747   | 264   |
| 1994 | 1,298 | 841   | 827   | 1,700 | 649   |
| 1995 | 1,271 | 750   | 1,282 | 1,837 | 842   |
| 1996 | 1,518 | 737   | 1,888 | 2,139 | 934   |
| 1997 | 1,142 | 634   | 916   | 1,791 | 762   |
| 1998 | 598   | 268   | 909   | 1,114 | 682   |
| 1999 | 852   | 458   | 494   | 1,278 | 352   |
| 2000 | 1,396 | 777   | 1,006 | 2,148 | 730   |
| 2001 | 1,755 | 1,056 | 1,026 | 3,233 | 653   |
| 2002 | 2,523 | 1,389 | 2,115 | 4,481 | 1,062 |
| 2003 | 3,112 | 1,681 | 2,867 | 5,674 | 1,757 |
| 2004 | 3,966 | 2,146 | 3,714 | 8,085 | 2,336 |
| 2005 | 4,618 | 2,254 | 3,654 | 9,595 | 2,792 |
| 2006 | 4,683 | 2,301 | 4,530 | 9,875 | 3,380 |
| 2007 | 4,583 | 2,121 | 7,179 | 9,192 | 5,300 |
| 2008 | 3,234 | 1,288 | 4,852 | 6,551 | 3,762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이처럼 수만 건에 달하는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매우 다양한 유형을 포함하는 거대하고도 복잡한 현상이지만, 대체로 다음의 특징을 갖는 것으로 정리된다. 중소기업에 의한 투자 비중이 높아서 평균 투자규모가 매우 작으며, 투자 업종에 있어서는 제조업의 비중이 뚜렷하게 높고, 투자 지역은 산둥성(山東省), 강소성(江蘇省)등 연해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 등이다 (周茂清 2001).

첫째로, 투자자에 있어서 재벌기업을 포함한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 등 다양한 주체가 중국에 투자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투자자를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으로 구분할 때 중소기업의 대 중국 투자는 총 건수의 60%, 총 투자액의 44%를 차지하는 반면, 다른 지역에 대한 투자에서는 그 비율이 각각 46%, 21%에 불과하다. 이러한 투자 주체의 특성은 투자 규모와 연관되는데, 대 중국 투자의 건당 평균 투자 규모의 35%에 불과하다. 2002년 이후 대 중국 투자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평균 해외투자 규모와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2006년에도 대 중국 투자의 건당 규모는 140만 달러로 여타 지역 평균 투자 금액인 260만 달러의 56%에 머물렀다. 또한 중국통계에 근거한 한국의 대 중국 투자의 건당 규모도 중국의 전체 외국인투자 평균 규모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지만수 2007).

둘째로 투자 업종에 있어서 제조업의 비중이 전체 투자의 80% 내외를 유지해 오면서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여타 지역으로의 해외투자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0% 수준인 것의 2배에 해당하는 것이다(지만수 2007, p. 37). 또한 중국내 전체 외국인투자에서 제조업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65% 내외인 것에 비해서도 뚜렷하게 높은 것이다(지만수 2007, p. 40). 한국의 제조업 투자는 초기에 섬유, 신발 등 전통적 노동집약적 제조업에서 출발하여 전자, 화학 등으로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자동차, 기계, 조선 등 광범한 업종으로 확산되었다. 한편 근년에 그 비중은 높지 않지만 유통, 부동산 등 다양한 서비스 부문의 투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셋째로, 한국의 대 중국 투자는 초기에 산둥성(山東省), 요녕성(遼寧省) 등 일부 지역에 제한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점차 전체 연해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이 결과 현재는 산둥성을 필두로 장강삼각주(長江三角洲) 지역(상

해, 강소성, 절강성), 천진, 북경 지역, 요녕성 중심의 동북지역의 순서로 집중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2006년에는 처음으로 강소성이 산둥성을 제치고 제1위 투자지역으로 부상하였다. 여타 외국의 대중국 투자와 비교할 때 광둥성(廣東省), 복건성(福建省)등 지역의 비중이 낮은 편이며, 내륙지방에 대한 투자는 다른 외국과 비슷하게 미미한 편이다(김시중 2007).

한편 중국의 대한국 직접투자도 건수로는 크게 증가하였지만 대부분은 극히 소규모의 무역, 식당 관련 투자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표 4-6>에 나타난 한국 산업자원부의 신고기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2006년 말까지 누계로 5천여 건, 18억 달러에 달하였다. 따라서 평균 건당 투자규모가 30여만 달러로 나타나고 있지만, 극소수의 대형투자를 제외하면 건당 투자규모는 10만 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대규모 투자의 예로는 2002년 BOE그룹의 하이닉스 TFT-LCD부문 인수(1억9천만 달러)와 2004년 上海氣車의 쌍용자동차 인수(5억 달러)를 들 수 있다. 한편 제시된 신고 기준 통계에는 투자가 실현되지 않은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는 5억8천만 달러에 달하였던 Sinochem(中國中化集團公司)의 인천정유 인수 시도(2004년)가 있다. 최근 중국은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기초로 외국의 기술, 자원, 브랜드 등을 확보하기 위한 해외투자를 장려하는 소위 '走出去'<sup>7)</sup>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투자 실적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 정부나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이 보유한 기술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중국의 대한국 투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 기업들이 현재 채권단 관리 하에 있는 대우해양조선이나 대우일렉트릭(구 대우전자)의 인수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중국 정부 차원에서도 한국의 기업도시 프로젝트의 하나로 전라도 무

7) 走出去 : '쨌우추취'전략은 기업의 해외진출

안에 한·중국제산업단지 조선 산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4-7> 중국의 대 한국 직접투자 추이 (신고기준)

(단위: 건, 백만 달러)

|      |    |       |
|------|----|-------|
| 2002 | 건수 | 442   |
|      | 금액 | 249   |
| 2003 | 건수 | 522   |
|      | 금액 | 50    |
| 2004 | 건수 | 597   |
|      | 금액 | 1,165 |
| 2005 | 건수 | 671   |
|      | 금액 | 68    |
| 2006 | 건수 | 334   |
|      | 금액 | 40    |
| 2007 | 건수 | 364   |
|      | 금액 | 384   |
| 2008 | 건수 | 389   |
|      | 금액 | 336   |
| 누계   | 건수 | 3,319 |
|      | 금액 | 2,292 |

자료: 한국 산업자원부

이 밖에 양국의 교류도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06년에는 한국인의 중국 방문 이 400만에 달하고, 중국인의 한국방문도 100만에 달하고 있다. 또한 상대방 국가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사람도 크게 증가해서, 한국인의 중국 장기 체류자가 70만에 이르고, 조선족 동포를 포함한 중국인의 한국 장기 체류자도 40만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양국 모두에 있어 자국내 외국인 유학생 중 상대국에서 온 학생이 최대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 제 3 절 한·중간 산업별경쟁력 비교분석

#### 가. 무역특화지수

제Ⅱ장참조. 무역특화지수(TSI: the specialization index)는 한 상품의 총수출액과 총수입액, 그리고 전체무역액을 이용해 상품의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그 공식은 다음과 같다.

$$TSCi = (X_{Ai} - M_{Ai}) / (X_{Ai} + M_{Ai})$$

공식에서  $X_{Ai}$ 와  $M_{Ai}$  는 A국가의 i상품 수출과 수입을 나타낸다. TSI 지수는  $-1(X_{Ai}=0, M_{Ai} > 0)$  일 경우 과  $+1(X_{Ai} > 0, M_{Ai}=0)$  일 경우) 사이이다. 지수가 클수록 A국가 i상품의 경쟁우위도 커진다.

이 지수가 0인 경우 비교우위는 중간정도이며 1이면 완전 수출특화상태를 말한다. 수입은 전혀 하지 않고 수출만 한다는 뜻이다. 또  $-1$ 이면 완전 수입특화 상태이다. 수출물량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입만 한다는 뜻이다.

이 지수는 국제경쟁력 지수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럴 경우 0 이상 1 이하이면 그 제품이나 산업이 무역흑자를 기록해 국제경쟁력이 강한 것을 뜻하고  $-1$ 에 가까울수록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하거나 수출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4-8>한국 30대수출입상품 무역특화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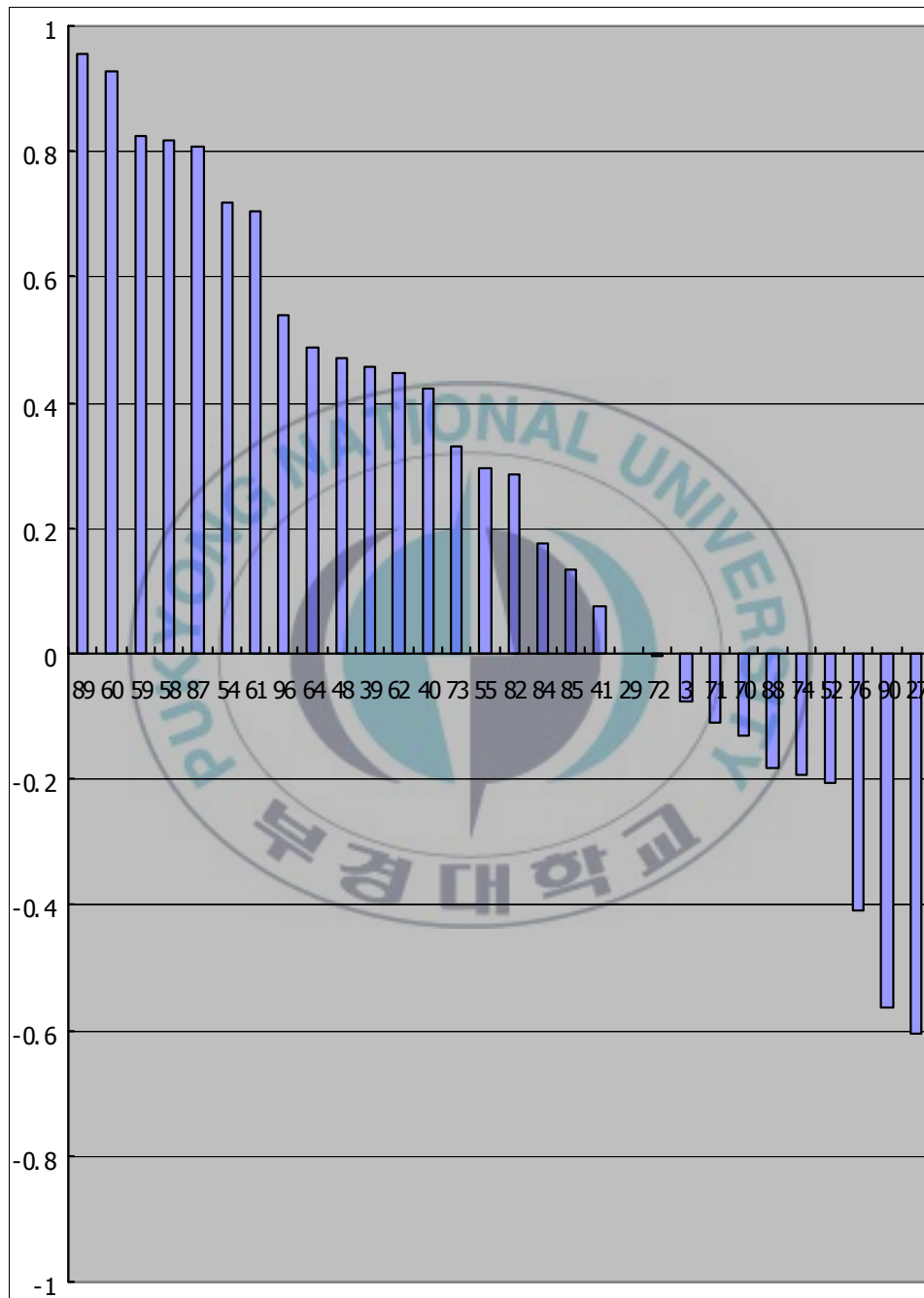
| 순위 <sup>a)</sup> | 2000               |            | 2005               |            | 2008               |            |
|------------------|--------------------|------------|--------------------|------------|--------------------|------------|
|                  | HS코드 <sup>b)</sup> | 무역특화<br>지수 | HS코드 <sup>b)</sup> | 무역특화<br>지수 | HS코드 <sup>b)</sup> | 무역특화<br>지수 |
| 1                | 85                 | 0.1326     | 85                 | 0.2457     | 85                 | 0.2201     |
| 2                | 84                 | 0.1751     | 87                 | 0.1591     | 87                 | 0.7413     |
| 3                | 87                 | 0.8069     | 84                 | 0.7988     | 84                 | 0.0570     |
| 4                | 27                 | -0.6048    | 89                 | 0.8762     | 89                 | 0.8484     |
| 5                | 89                 | 0.9542     | 27                 | -0.6227    | 27                 | -0.5750    |
| 6                | 39                 | 0.4572     | 39                 | 0.4506     | 90                 | 0.3883     |
| 7                | 72                 | -0.0029    | 72                 | -0.1219    | 72                 | -0.2530    |
| 8                | 29                 | -0.0001    | 90                 | -0.0391    | 39                 | 0.4604     |
| 9                | 54                 | 0.7188     | 29                 | 0.1084     | 29                 | 0.1773     |
| 10               | 60                 | 0.9267     | 73                 | 0.2684     | 73                 | 0.1779     |
| 11               | 73                 | 0.3306     | 40                 | 0.4167     | 40                 | 0.3786     |
| 12               | 61                 | 0.7054     | 54                 | 0.6592     | 74                 | -0.2050    |
| 13               | 71                 | -0.1111    | 60                 | 0.9450     | 60                 | 0.9417     |
| 14               | 62                 | 0.4454     | 74                 | -0.1838    | 54                 | 0.5758     |
| 15               | 40                 | 0.4221     | 48                 | 0.3608     | 71                 | -0.1392    |
| 16               | 48                 | 0.4698     | 76                 | -0.3763    | 48                 | 0.2842     |
| 17               | 90                 | -0.5619    | 55                 | 0.2904     | 76                 | -0.3816    |
| 18               | 59                 | 0.8257     | 61                 | 0.2321     | 28                 | -0.3914    |
| 19               | 55                 | 0.2950     | 38                 | -0.5282    | 38                 | -0.4885    |
| 20               | 41                 | 0.0770     | 59                 | 0.6808     | 55                 | 0.2513     |
| 21               | 74                 | -0.1922    | 71                 | -0.2050    | 82                 | 0.3545     |
| 22               | 3                  | -0.0761    | 82                 | 0.3008     | 32                 | -0.1787    |
| 23               | 76                 | -0.4084    | 32                 | -0.1905    | 59                 | 0.5980     |
| 24               | 58                 | 0.8170     | 62                 | -0.3143    | 3                  | -0.3872    |
| 25               | 52                 | -0.2066    | 41                 | -0.0023    | 61                 | -0.1679    |
| 26               | 64                 | 0.4893     | 70                 | -0.3610    | 41                 | 0.0461     |
| 27               | 96                 | 0.5405     | 3                  | -0.4156    | 79                 | 0.7003     |
| 28               | 88                 | -0.1811    | 52                 | 0.6525     | 97                 | 0.0417     |
| 29               | 82                 | 0.2862     | 28                 | -0.5222    | 31                 | 0.0222     |
| 30               | 70                 | -0.1313    | 58                 | 0.7254     | 30                 | -0.5879    |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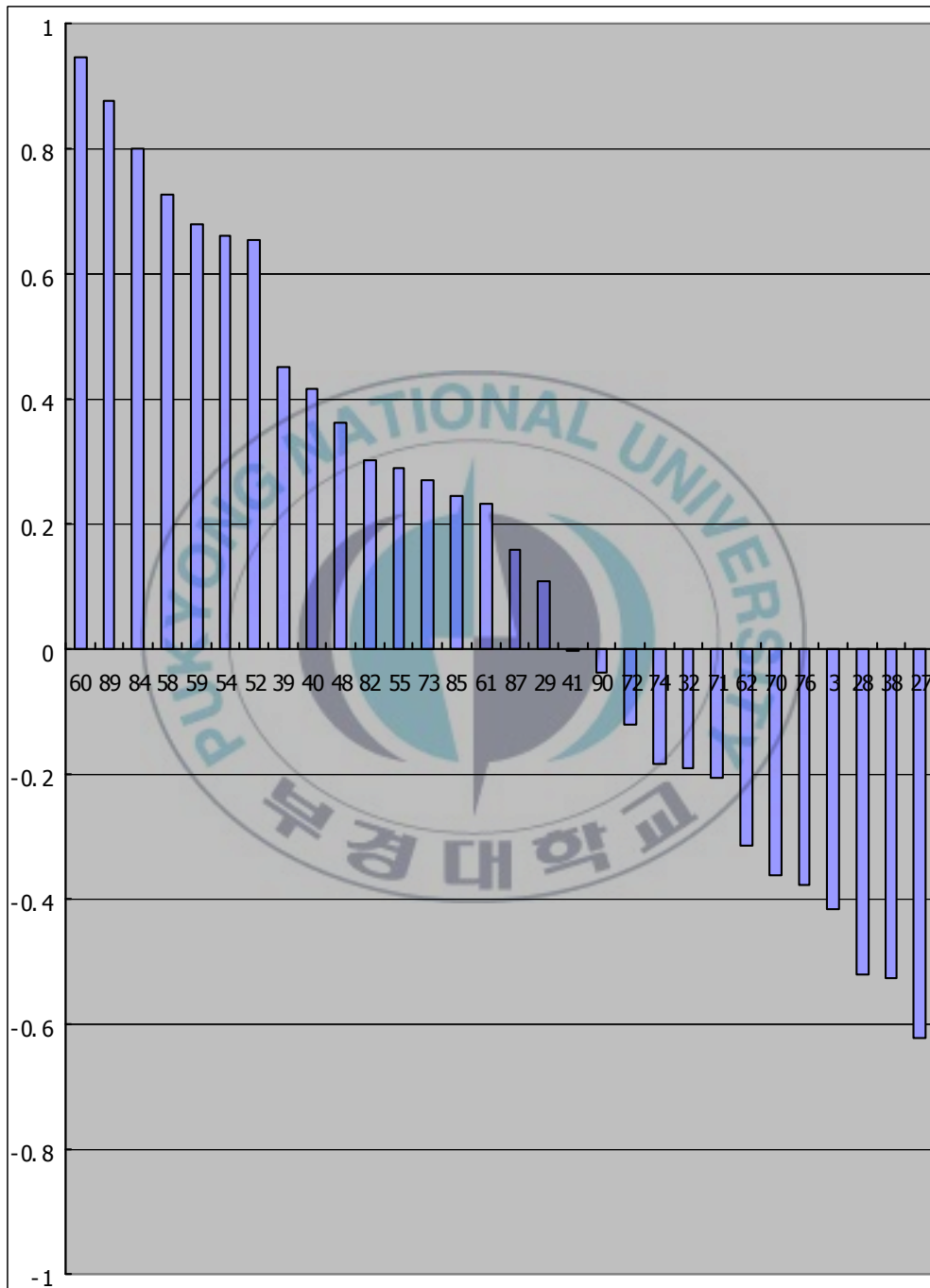
a) 순위는 한국수출금액기준

b) HS코드는 부록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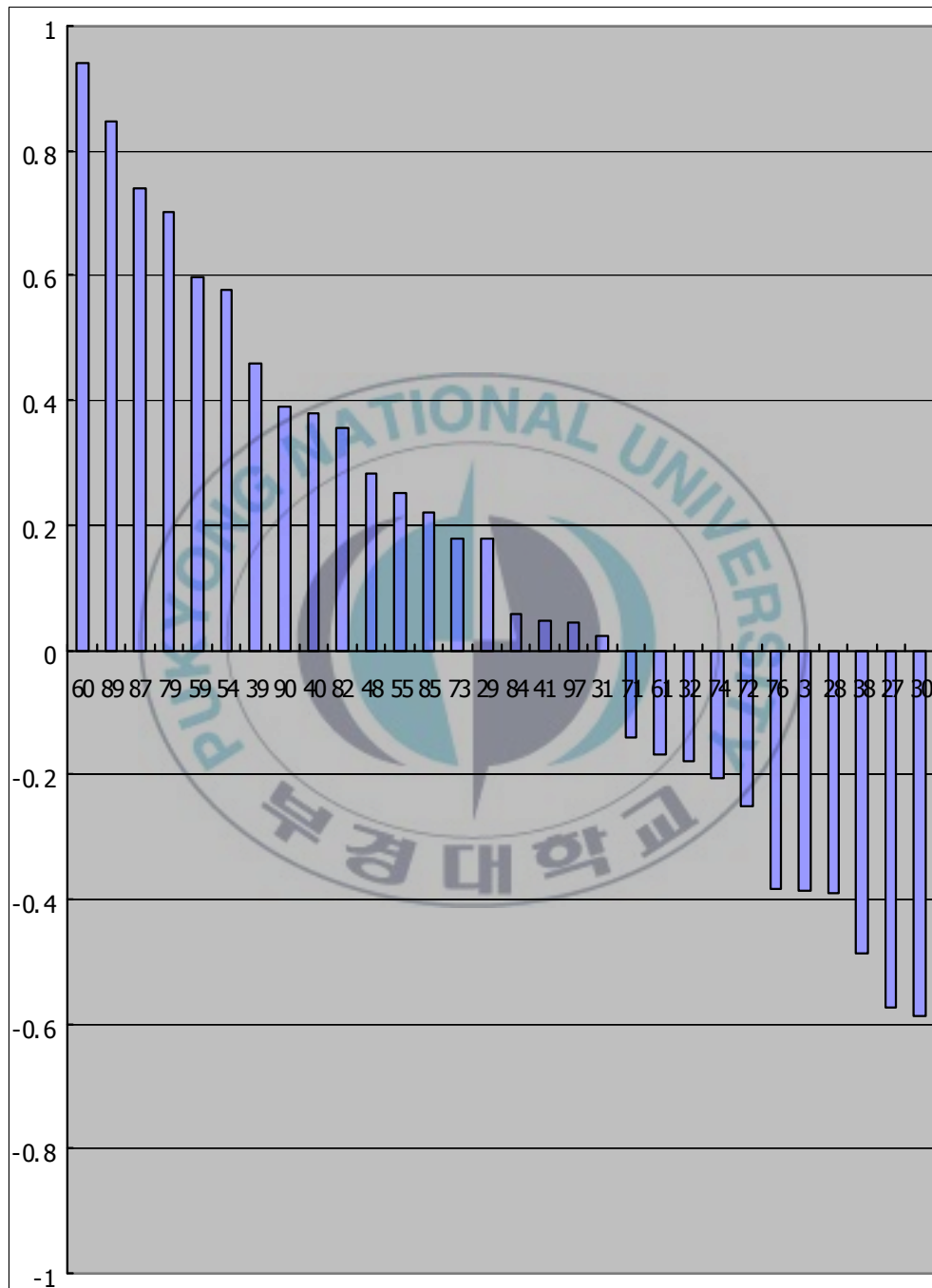
<그림 4-1> 2000년 한국 30대 수출상품 무역특화지수



<그림 4-2> 2005년 한국 30대 수출상품 무역특화지수



<그림 4-3> 2008년 한국 30대 수출상품 무역특화지수



<표 4-9>중국 30대수출상품 무역특화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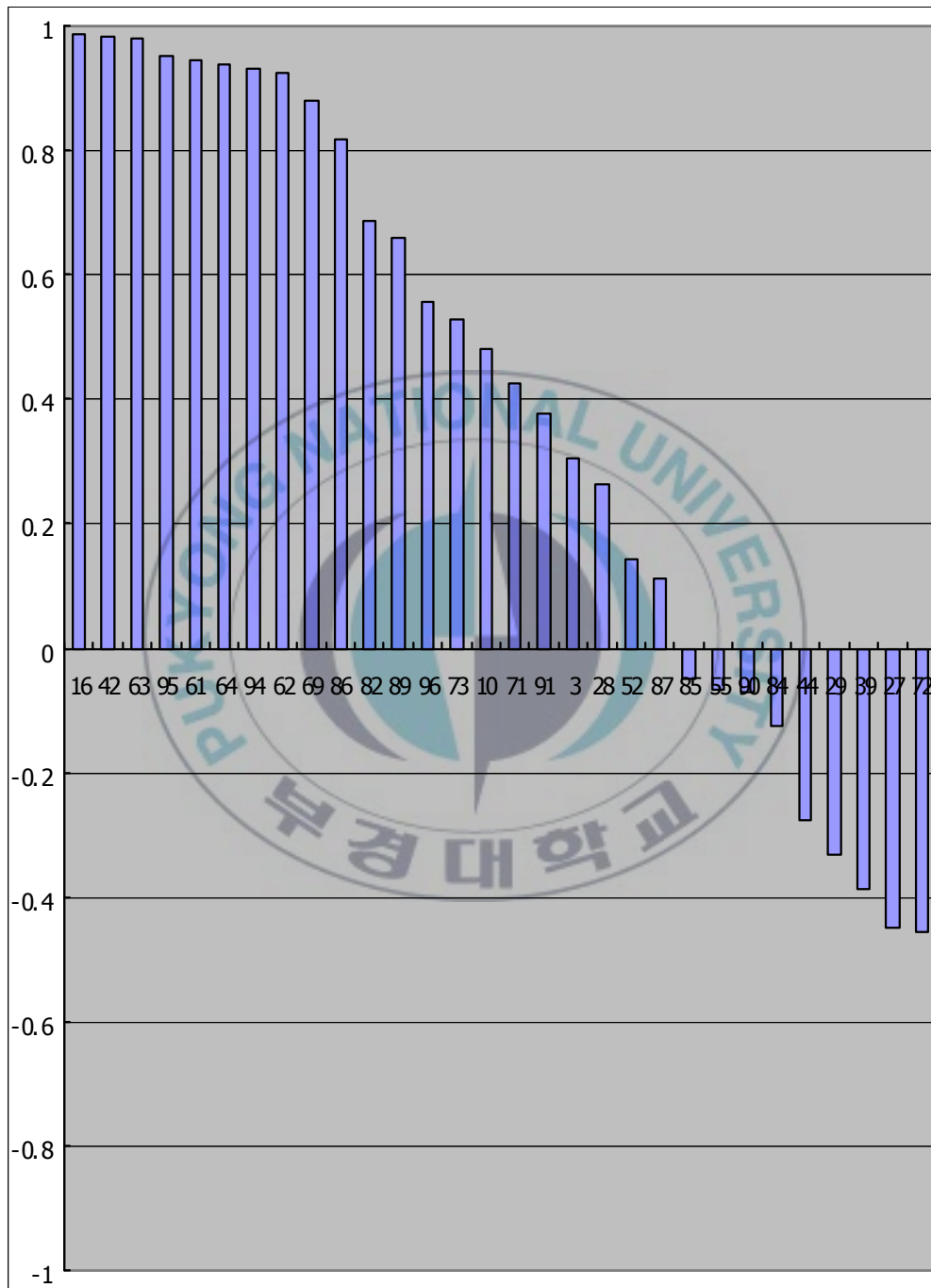
| 순위 <sup>a)</sup> | 2000년              |            | 2005년              |            | 2008년              |            |
|------------------|--------------------|------------|--------------------|------------|--------------------|------------|
|                  | HS코드 <sup>b)</sup> | 무역특화<br>지수 | HS코드 <sup>b)</sup> | 무역특화<br>지수 | HS코드 <sup>b)</sup> | 무역특화<br>지수 |
| 1                | 85                 | -0.0484    | 85                 | -0.0072    | 85                 | 0.1239     |
| 2                | 84                 | -0.1245    | 84                 | 0.2169     | 84                 | 0.3191     |
| 3                | 62                 | 0.9233     | 62                 | 0.9545     | 61                 | 0.9722     |
| 4                | 61                 | 0.9445     | 61                 | 0.9560     | 72                 | 0.3714     |
| 5                | 64                 | 0.9371     | 90                 | -0.3253    | 62                 | 0.9545     |
| 6                | 95                 | 0.9520     | 94                 | 0.9292     | 73                 | 0.6416     |
| 7                | 27                 | -0.4502    | 95                 | 0.9383     | 90                 | -0.2834    |
| 8                | 94                 | 0.9301     | 64                 | 0.9447     | 94                 | 0.9308     |
| 9                | 42                 | 0.9837     | 73                 | 0.5394     | 87                 | 0.1868     |
| 10               | 39                 | -0.3870    | 39                 | -0.3041    | 95                 | 0.9293     |
| 11               | 90                 | -0.0706    | 27                 | -0.5696    | 27                 | -0.6861    |
| 12               | 73                 | 0.5284     | 87                 | 0.1500     | 64                 | 0.9339     |
| 13               | 87                 | 0.1134     | 72                 | -0.2692    | 39                 | -0.2455    |
| 14               | 29                 | -0.3325    | 29                 | -0.3961    | 29                 | -0.1487    |
| 15               | 52                 | 0.1443     | 42                 | 0.9567     | 89                 | 0.8765     |
| 16               | 72                 | -0.4546    | 63                 | 0.9772     | 42                 | 0.9201     |
| 17               | 63                 | 0.9805     | 52                 | 0.0249     | 63                 | 0.9742     |
| 18               | 55                 | -0.0661    | 28                 | 0.1810     | 76                 | 0.3508     |
| 19               | 28                 | 0.2632     | 44                 | 0.0582     | 28                 | 0.1847     |
| 20               | 86                 | 0.8170     | 86                 | 0.8600     | 40                 | -0.0143    |
| 21               | 71                 | 0.4237     | 76                 | 0.0998     | 52                 | 0.1791     |
| 22               | 3                  | 0.3040     | 54                 | 0.2193     | 86                 | 0.7532     |
| 23               | 44                 | -0.2768    | 71                 | 0.2289     | 44                 | 0.0756     |
| 24               | 82                 | 0.6880     | 40                 | -0.0069    | 70                 | 0.4454     |
| 25               | 69                 | 0.8778     | 82                 | 0.5306     | 54                 | 0.4114     |
| 26               | 16                 | 0.9873     | 69                 | 0.8873     | 83                 | 0.7325     |
| 27               | 91                 | 0.3785     | 83                 | 0.7014     | 38                 | -0.0613    |
| 28               | 10                 | 0.4812     | 89                 | 0.8115     | 71                 | 0.0584     |
| 29               | 89                 | 0.6580     | 70                 | 0.2739     | 69                 | 0.8943     |
| 30               | 96                 | 0.5561     | 55                 | 0.1482     | 48                 | 0.2763     |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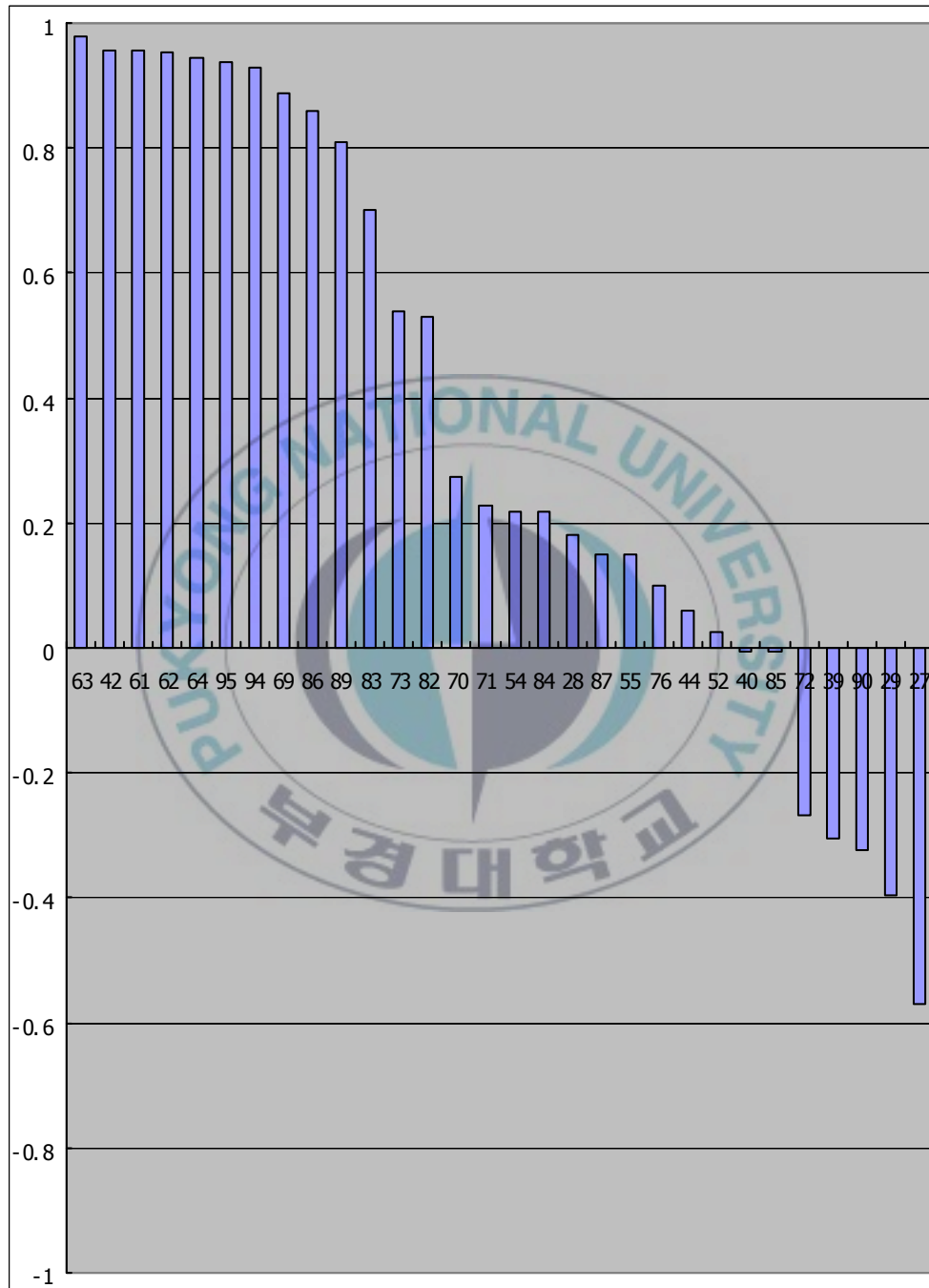
a) 순위는 중국수출금액기준

b) HS코드는 부록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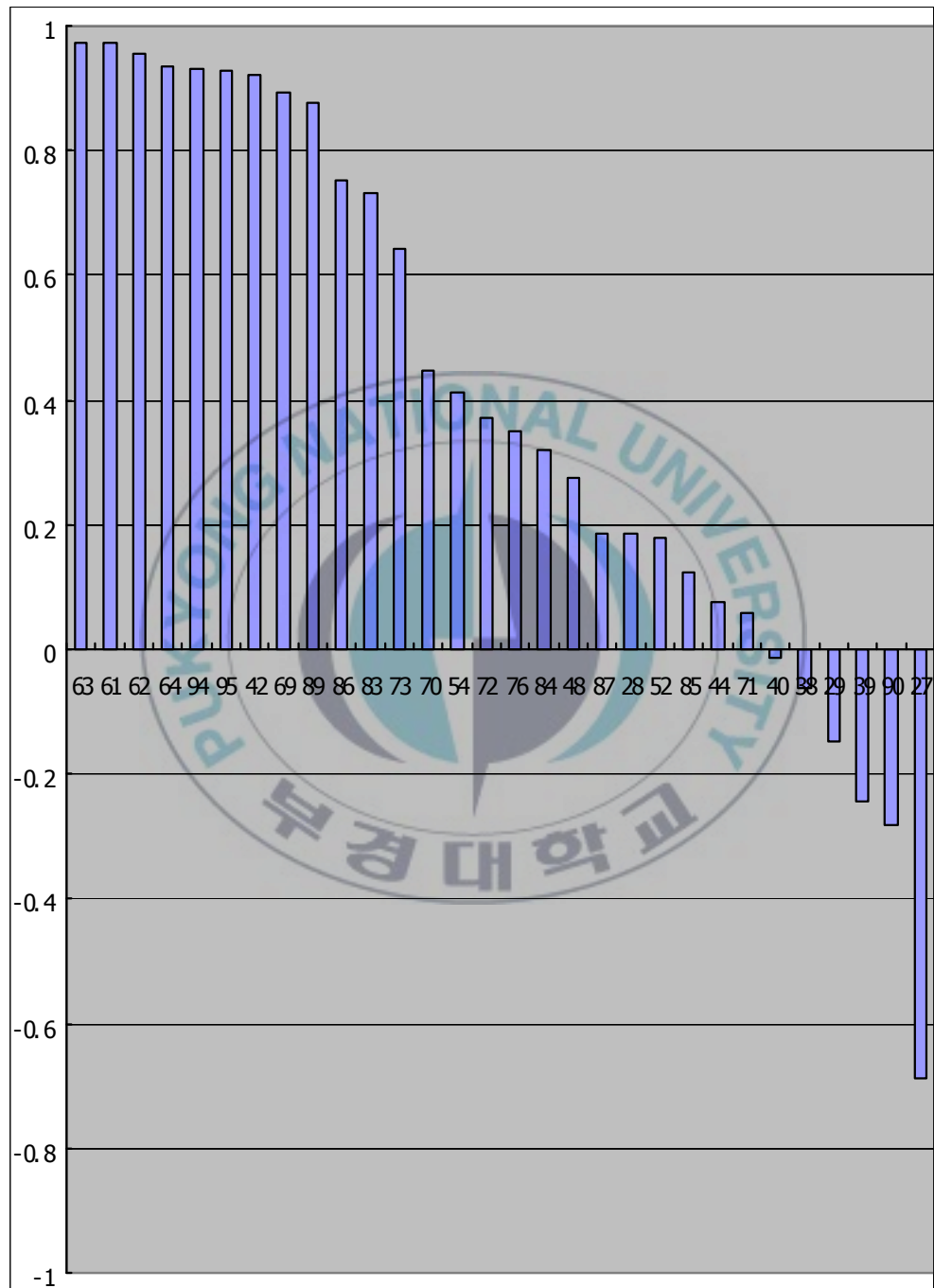
<그림 4-4> 2000년 중국 30대수출상품 무역특화지수



<그림 4-5> 2005년 중국 30대수출상품 무역특화지수



<그림 4-6> 2008년 중국 30대수출상품 무역특화지수



참조<표4-7, 4-8, 그림4-1~6> 한국의 경우 30대 수출 상품 중 89<sup>8)</sup> (선박)의 무역특화지수가 2000년 0.9542, 2005년 0.8762, 2008년 0.8484를 보이고 있으며, 60 (메리야스편물)의 무역특화지수는 2000년 0.9267, 2005년 0.9450, 2008년 0.9417를 나타내고 있고, 59 (섬유제품)의 경우 2000년 0.8257, 2005년 0.6808, 2008년 0.5980로 나타났는데, 무역특화지수가 모두 높은 것으로 비추어 보아, 이러한 상품에 전세계적으로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 중국은 63 (방직용섬유제품)에서 무역특화지수가 2000년 0.9805, 2005년 0.9772, 2008년 0.9742를 보이고 있으며, 61 (메리야스 및 뜨개질편물의 의류와 그 부품)에서 2000년 0.9445, 2005년 0.9560, 2008년 0.9722를, 62 (의류와 그 부속품)에서 2000년 0.9233, 2005년 0.9545, 2008년 0.9545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64 (신발류, 모자류)에서 2000년 0.9371, 2005년 0.9447, 2008년 0.9339를, 95 (완구, 유희용구)에서 2000년 0.9520, 2005년 0.9383, 2008년 0.9293을 나타내고 있어 중국은 위와 같은 상품 수출시장에서 비교적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한·중 양국은 상위산업과 유사산업에서 경쟁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무역특화지수를 통해 얻은 결과를 보면, 중국은 노동집약형 산업에 치중되어 있다. 예를 들어 63 (방직용섬유제품), 62 (의류와 그 부속품), 95 (완구, 유희용구) 등 상품은 모두 노동집약형 산업에 속한다. 반면 한국은 89 (선박), 59 (섬유제품)과 같이 중공업기술산업에서 비교적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8) HS코드 부록참조

## 나. 수출경합도지수

수출경합도지수(ESI: Export Similarity Index)는 양국의 수출구조가 유사할수록 경쟁이 높다는 가정하에 특정 시장에서 양국 간의 경쟁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ESIAB = \sum_i \min(XAi/XA, XBi/XB)$$

공식에서 XA와 XB는 각각 A국과 B국의 총 수출을 나타내고, XAi와 XBi는 각각 A국과 B국의 i상품 총수출을 나타낸다.  $ESI \leq 1$ 일 때 비교적 이상적인 지수이다. 양국의 수출구조가 유사할수록 이 지수는 1에 가까워진다.

예를 들어 C국 시장에서 A, B국의 수출상품구조가 완전히 일치하면 ESI는 100, 두 나라의 수출구조가 전혀 다르면 0이 된다. 따라서 ESI의 값이 100에 가까울수록 두 나라의 수출은 경쟁적인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수출경합도지수는 A국의 C국에 대한 수출 중 상품 i의 비중과 B국의 C국에 대한 수출 중 상품 i의 비중 중에서 작은 수치에 100을 곱하는 방법으로 모든 수출상품에 대해 얻어진 값들을 합산하여 얻어진다. ESI는 다른 국제무역 관련 지표들과 달리 국제무역통계만을 이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표 4-10>한·중 수출경합도지수

| 2000년  | 2005년  | 2008년  |
|--------|--------|--------|
| 0.5964 | 0.6370 | 0.6395 |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음

<표4-10>에서 2000년, 2005년, 2008년의 한·중 수출경합도지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0년의 수출경합도지수를 보면 0.5964로써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한국과 중국의 수출구조가 다소 상이하며 전체적으로 경쟁강도가 높지 않다는 점을 설명한다. 그러나 2005년과 2008년의 수출경합도지수는 0.6370과 0.6395로써 이는 한국과 중국의 수출구조가 점차적으로 유사하게 접근하므로서 높은 경쟁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설명한다.

#### 다. 수출시장밀도지수

수출시장밀도지수(EMI: Export Market Intensity Index)는 A국가에서 B국가로의 수출에 대한 수출시장 탄성지수이다.

$$EMI_{AB} = (X_{AB}/X_A)/(M_B/M)$$

$X_{AB}$ 는 A국가에서 B국가로 수출한 수출 총액,  $X_A$ 는 A국가의 수출총액이다.  $M_B$ 는 B국가의 수입총액,  $M$ 은 전 세계 수입총액을 나타낸다.  $EMI > 1$  일 때, A국가에서 B국가로 수출한 수출 총액이 전 세계에서 B국으로 수출한 수출 총액보다 크며, 이것은 B국가의 무역구조가 A국가에 의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4-11>한·중 수출시장밀도지수

| 년도   | 한국 대중국<br>수출시장밀도지수 | 중국 대한국<br>수출시장밀도지수 |
|------|--------------------|--------------------|
| 2000 | 6.7740             | 4.5545             |
| 2005 | 7.8084             | 4.5959             |
| 2008 | 7.3532             | 4.6220             |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음

<표4-11>을 보게 되면, 한국과 중국의 수출시장밀도지수는 2000년, 2005년, 2008년 모두 1보다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양국의 무역이 서로 의존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2000년, 2005년, 2008년의 수출시장 밀도지수는 한국이 중국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국의 무역이 한국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 라. 산업내무역지수

산업내무역지수(IIT: Intra-Industry Trade Index)는 양국가의 i산업내 부 무역지수이다. 이 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산업내무역이 활발하고 양국의 산업이 상호 긴밀한 보완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IIT_i = 1 - (|X_i - M_i| / (X_i + M_i))$$

우선, 이 공식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값은 0~1 사이다.  $X_i$ 는 i산업의 수출 총액이고,  $M_i$ 는 i 산업의 수입 총액이다.  $X_i$  또는  $M_i$ 가 0일 때 (단, 동시에 0일수 없다), 이 지수는 0 이다.  $X_i$ 와  $M_i$ 가 같을 때 (둘 모두 0보다 큼), 이 지수는 1이다.

<표4-12>한·중간 30대 수출입산품 산업내무역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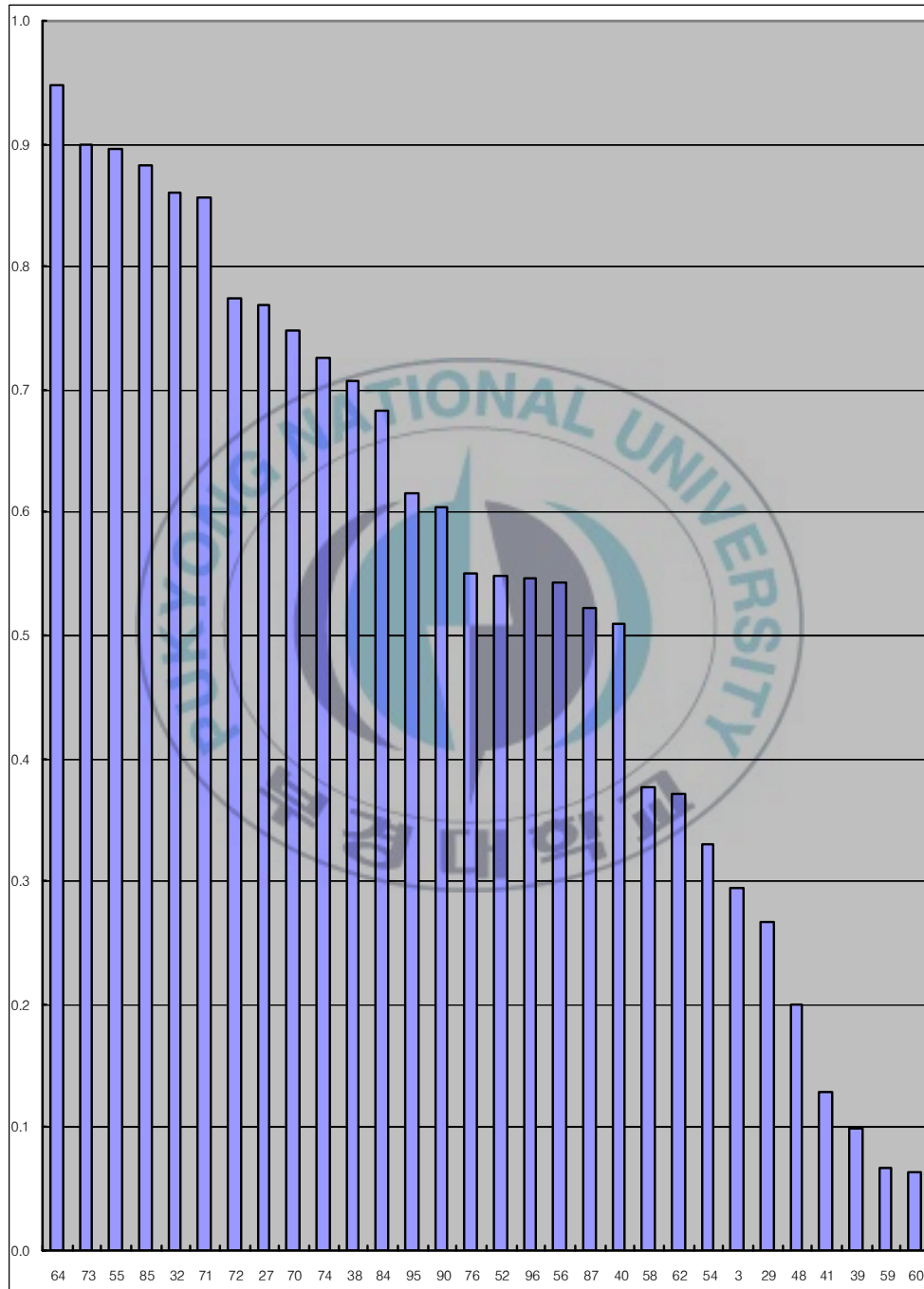
| 순위 <sup>a)</sup> | 2000               |              | 2005               |              | 2008               |              |
|------------------|--------------------|--------------|--------------------|--------------|--------------------|--------------|
|                  | HS코드 <sup>b)</sup> | 산업 내<br>무역지수 | HS코드 <sup>b)</sup> | 산업 내<br>무역지수 | HS코드 <sup>b)</sup> | 산업 내<br>무역지수 |
| 1                | 85                 | 0.8816       | 85                 | 0.7259       | 85                 | 0.8831       |
| 2                | 84                 | 0.6820       | 84                 | 0.6550       | 90                 | 0.2711       |
| 3                | 39                 | 0.0996       | 29                 | 0.2518       | 84                 | 0.8524       |
| 4                | 29                 | 0.2672       | 90                 | 0.2811       | 29                 | 0.3371       |
| 5                | 27                 | 0.7687       | 39                 | 0.1943       | 27                 | 0.6353       |
| 6                | 72                 | 0.7737       | 72                 | 0.9735       | 39                 | 0.2768       |
| 7                | 41                 | 0.1287       | 27                 | 0.8230       | 72                 | 0.4056       |
| 8                | 54                 | 0.3308       | 87                 | 0.1504       | 87                 | 0.5013       |
| 9                | 55                 | 0.8959       | 74                 | 0.4013       | 74                 | 0.3833       |
| 10               | 59                 | 0.0674       | 54                 | 0.4349       | 73                 | 0.4309       |
| 11               | 60                 | 0.0632       | 76                 | 0.7185       | 28                 | 0.6720       |
| 12               | 48                 | 0.1991       | 60                 | 0.0693       | 38                 | 0.8251       |
| 13               | 64                 | 0.9485       | 73                 | 0.6910       | 76                 | 0.5746       |
| 14               | 74                 | 0.7250       | 55                 | 0.8728       | 54                 | 0.7246       |
| 15               | 76                 | 0.5498       | 41                 | 0.3445       | 40                 | 0.6404       |
| 16               | 58                 | 0.3774       | 38                 | 0.6631       | 89                 | 0.9863       |
| 17               | 87                 | 0.5221       | 40                 | 0.5399       | 60                 | 0.1252       |
| 18               | 32                 | 0.8605       | 59                 | 0.2759       | 48                 | 0.9129       |
| 19               | 90                 | 0.6050       | 48                 | 0.5868       | 41                 | 0.2341       |
| 20               | 62                 | 0.3716       | 32                 | 0.7598       | 32                 | 0.9297       |
| 21               | 73                 | 0.8993       | 64                 | 0.6788       | 59                 | 0.5351       |
| 22               | 40                 | 0.5093       | 62                 | 0.2629       | 55                 | 0.9548       |
| 23               | 70                 | 0.7474       | 52                 | 0.7095       | 94                 | 0.3673       |
| 24               | 38                 | 0.7072       | 94                 | 0.4652       | 62                 | 0.2196       |
| 25               | 52                 | 0.5493       | 28                 | 0.3741       | 64                 | 0.5204       |
| 26               | 96                 | 0.5470       | 58                 | 0.6111       | 83                 | 0.9634       |
| 27               | 95                 | 0.6165       | 70                 | 0.6054       | 82                 | 0.9855       |
| 28               | 3                  | 0.2951       | 56                 | 0.6344       | 3                  | 0.3195       |
| 29               | 56                 | 0.5421       | 71                 | 0.8676       | 71                 | 0.9429       |
| 30               | 71                 | 0.8571       | 82                 | 0.8981       | 52                 | 0.4801       |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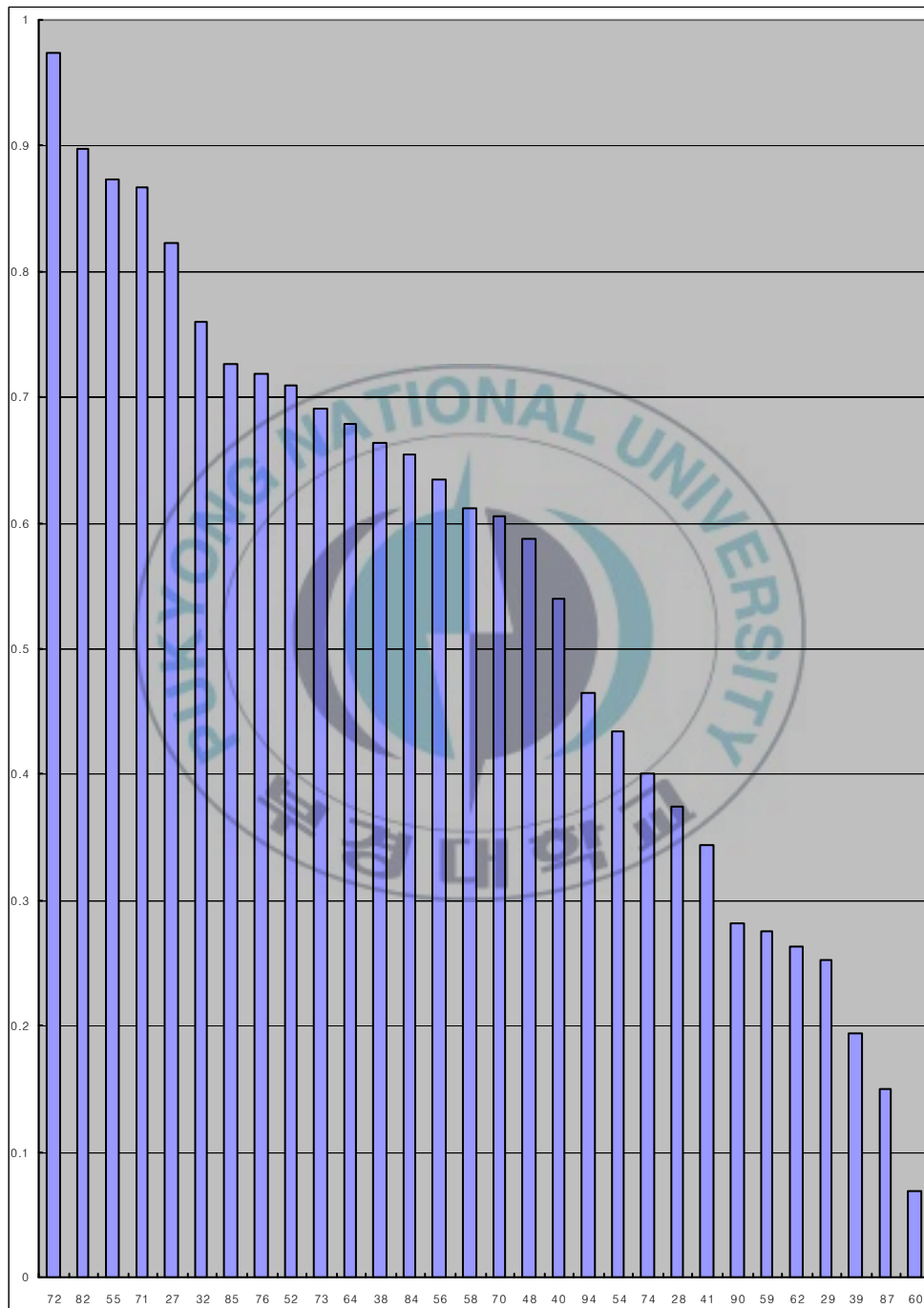
b) HS코드는 부록참조

a) 순위는 한국수출금액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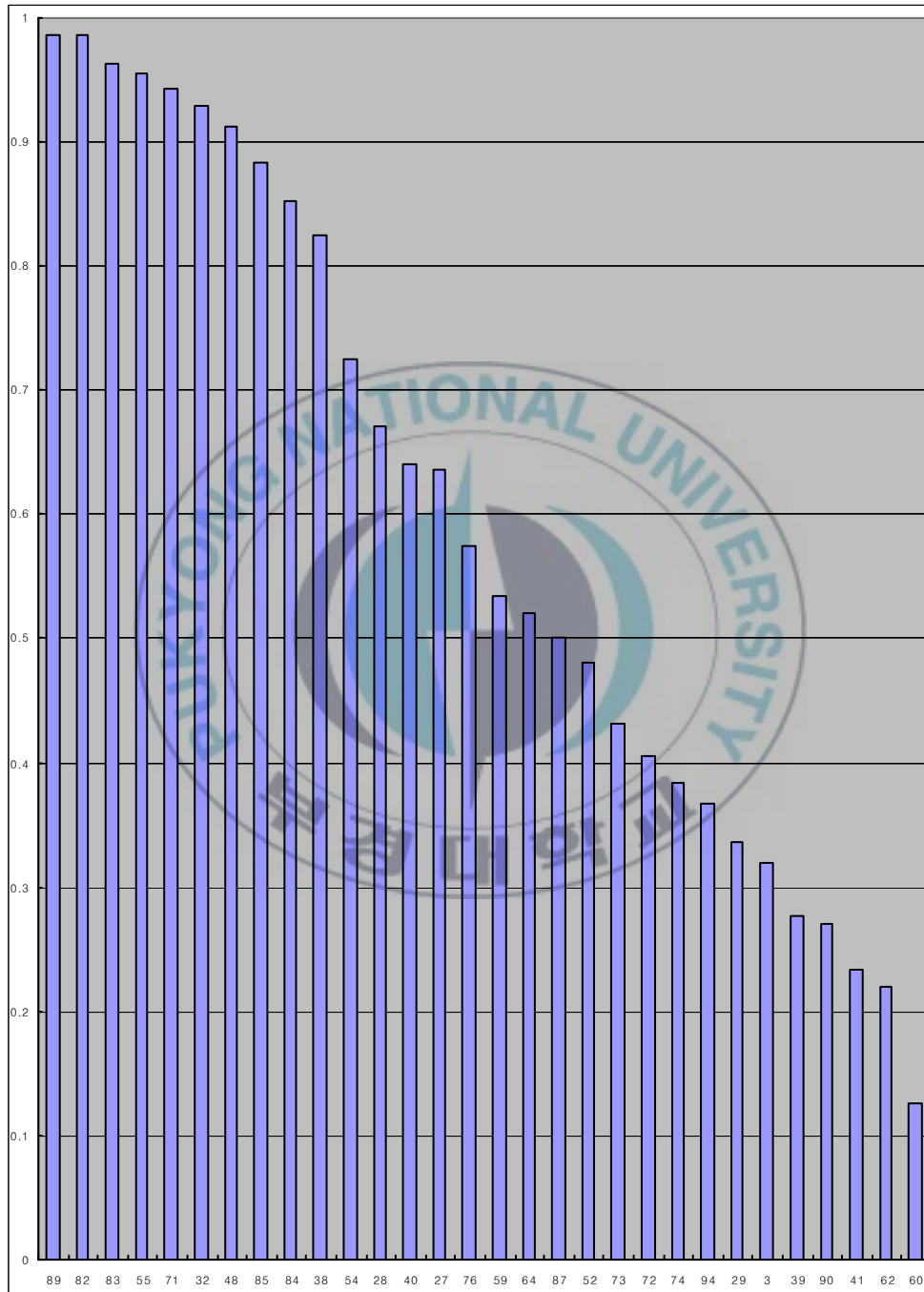
<그림 4-7> 2000년 한·중간 30대 수출입상품 산업내무역지수



<그림 4-8> 2005년 한·중간 30대 수출입상품 산업내무역지수



<그림 4-9> 2008년 한·중간 30대 수출입상품 산업내지수



<표4-12과 그림4-7~9>은 한·중간 2000년, 2005년, 2008년의 30대수  
출입상품의 산업내무역지수이다. 2000년 한·중간 64(신발류, 모자류) 0.94  
85, 73(철강의 제품) 0.8993, 55(인조단섬유) 0.8959, 85(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0.8816, 32(유연, 염색엑스 등) 0.8605, 71(진주, 귀석 등) 0.857  
1 등 품목의 산업내무역지수가 비교적 높다.

그러나 2005년에는 72 (철강) 0.9735, 82 (비금속제의 공구, 도구 등)  
0.8981, 55 (인조단섬유) 0.8728, 71 (진주, 귀석 등) 0.8676, 27 (광물  
성연료, 광물류 등) 0.8230, 32 (유연, 염색엑스, 탄닌과 그 유도체, 염료  
등) 0.7598 등 품목의 산업내무역지수가 비교적 높다.

끝으로 2008년에 와서는 89(선박과 수상구조물) 0.9863, 82(비금속제의  
공구, 도구 등) 0.9855, 83(비금속제의 각종제품) 0.9634, 55(인조단섬유)  
0.9548, 71(진주, 귀석 등) 0.9429, 32(유연, 염색엑스, 탄닌과 그 유도체,  
염료 등) 0.9297 등 상품의 산업내무역지수가 비교적 높다. 공식에 따르  
면, 2000년, 2005년, 2008년에 위에서 언급한 각각의 상품이 양국간 높은  
무역량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 82 (비금속제의 공구, 도구 등) 0.8981, 71 (진주, 귀석 등) 0.86  
76, 32 (유연, 염색엑스, 탄닌과 그 유도체, 염료 등) 0.7598 등의 상품은  
2005년부터 최근 2008년까지 산업내무역지수가 비교적 높다. 이것은 200  
5년 이래 양국간 무역에서 이러한 상품이 모두 비교적 높은 무역액을 유  
지하며, 한·중 무역에 있어 비교적 큰 보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제 V 장 결 론

### 제1절 요약

본 논문에서는 한·중 양국 간 FTA의 전략을 비교분석하고 산업내무역지수, 수출경합도지수, 수출시장밀도지수 및 산업내무역지수를 이용하여 한·중간산업별 경쟁력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 I 장 서론에서는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기존연구에 대한 검토, 연구방법 및 구성을 설명하였다. 제 II 에서는 본문의 기초가 되는 FTA와 경제통합에 관한 이론과 산업경쟁력의 개념 및 분석방법에 관한 이론적 틀을 기술하였다. 제 III 장에서는 한·중 양국 간의 FTA 전략을 살펴보고 양자간의 전략을 비교하였다. 중국의 FTA 전략을 살펴보면 중국은 급성장하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원자재 및 에너지 자원 조달과 세계3대 경제축을 형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FTA를 추진하고 외교 안보적 이익의 관점에서 지역리더십 강화와 대미 견제 차별화 등 여러 요인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지역통합의 대명제 아래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멀리,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추진하는 전략이다. 한국과 중국간 경제교류는 FTA 없이도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FTA 추진을 세밀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에는 FTA를 주요 통상수단으로 세계적인 지역주의 확산에 대응하면서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경제시스템을 선진화 시키고자 하는 기본정책과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정책을 바탕으로 한·질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ASEAN FTA를 성공적으로 체결하여 발효 시켰으며, 최근에 한·미 FTA, 한·EU FTA, 한·인도 FTA 체결 성과를 내고 캐나다, 멕시코,

GCC, 호주, 뉴질랜드, 페루와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제Ⅳ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산업별 경쟁력 분석을 위하여 수출입무역특화지수를 통하여 특정 상품의 비교우위를 규명하고, 수출경합도지수를 통하여 제3국시장에 대한 양국의 수출경합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수출시장밀도지수를 통하여 양국 간 무역구조의 의존도를 설명하고, 산업내무역지수를 통하여 양국 산업간의 보완관계를 설명하였다.

무역특화지수를 보면 한국 30대 수출 상품 중에서 2000년, 2005년, 2008년의 선박, 메리야스편물, 섬유제품 등 상품의 무역특화지수가 모두 높은 것으로 비추어 보아 2000년부터 2008년 사이의 이 종류의 상품은 전 세계적으로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에 중국의 경우, 방직용섬유제품, 메리야스 및 뜨개질편물의 의류와 그 부품, 신발류, 모자류, 완구, 유희용구 등의 상품이 수출시장에서 높은 무역특화지수를 보이고 있으므로,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우리는 한·중 양국의 각국 우열산업과 유사산업에서 경쟁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무역특화지수를 통해 얻은 결과를 보면, 한국은 선박, 섬유제품과 같이 중공업기술산업에서 비교적 국제경쟁력을 가진다. 반면 중국은 노동밀집형 산업에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수출경합도지수를 살펴보면 2000년, 2005년, 2008년까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의 수출경합도지수를 보면 0.5964로써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한국과 중국의 수출구조가 다소 상이하며 전체적으로 경쟁강도가 높지 않다는 점을 설명한다. 그러나 2005년과 2008년의 수출경합도지수는 0.6370과 0.6395로써 이는 한국과 중국의 수출구조가 점차적으로 접근하며 높은 경쟁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설명한다.

한국과 중국의 수출시장밀도지수는 2000년, 2005년, 2008년 모두 1보다 크게 나타났으므로 이는 양국의 무역은 서로 의존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 2005년, 2008년의 수출시장밀도지수는 한국의 경우 중국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국의 무역이 한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산업내무역지수는 2000년에는 양국 간 신발류, 모자류, 철강제품, 인조단섬유, 전기기기, 염색엑스, 진주, 귀석 등 상품의 산업내무역지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2005년에 철강, 비금속제의 공구, 인조단섬유, 진주, 광물성연료, 염료 등 상품의 산업내무역지수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8년에 와서는 선박, 비금속제의 공구, 비금속제의 각종제품, 인조단섬유, 진주, 염료 등 상품의 산업내무역지수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2000년, 2005년, 2008년 위에서 언급한 상품이 양국 간 높은 무역량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 비금속제의 공구, 진주, 귀석, 염료 등 상품은 2005년부터 최근 2008년까지 산업내무역지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이것은 2005년 이래 한·중 무역 중 이러한 상품이 모두 비교적 높은 무역액을 유지하며 한·중 무역에 있어 비교적 큰 보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제2절 한·중 FTA의 전략에 대한 시사점

한·중 FTA의 추진은 아직 양국 정부 간에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으나, 2005년부터 양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중국의 발전연구중심(DRC)간에 민간차원에서 FTA의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중국과 일본에 비해 FTA의 추진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렸던 한국은 최근 FTA를 핵심통상정책으로 내세우면서 훨씬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한국정부는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와 이미 FTA를 체결하였고, 미국, 인도, EU와는 거의 체결단계에 있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과의 FTA를 체결하기 위해 이전보다는 훨씬 적극적인 태도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사실 중국과의 FTA가 단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장기적'인 대상으로 치부하고 현재의 관심밖에만 둘 경우 자칫하면 미체결로 인한 정치, 경제적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빠른 속도로 각국이 FTA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나 투자대상국인 중국과의 FTA에 대해서는 신중하면서도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중 FTA추진의 어려움의 하나는 FTA추진이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수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한·중 FTA가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은 역시 농업분야의 개방이 가져올 농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주는 부담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중국도 한국과의 막대한 무역수지적자 및 제조분야에 대한 충격 때문에 한·중 FTA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양국이 유연성을 가지고 큰 틀 안에서 협상을 진행한다면 상호 양해와 양보를 통해 충분히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특히 공동연구나 실제 FTA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국이 상호협력을 통하여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개발하여 Win-Win의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때 FTA체결 가능성은 커질 수 있다.

본 연구는 한·중 양국 간의 FTA 전략을 비교하고, 양국의 산업간 경쟁력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한·중 FTA의 체결가능성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본 논문 중 다루지 못한 한·중 FTA의 경제적 영향에 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 < 참 고 문 헌 >

### 1. 국내문헌

- 강선구(2007), "수출시장 한·중경합치열해진다", 『LG주간경제』, 2007.7.17, pp. 10.
- 강준영·정환우(2007), "중국의 FTA 추진전략 분석-전략 목표별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1권 제3호, 2007.10.30, pp. 3-30.
- 김덕수(2007), "韓·中 FTA推進에 따른 對應方案", 『Journal of Korean Regional Development』, vol. 7, No. 2, 2007. 12, pp. 41~58.
- 김동호(2009), 『한·중 경제관계와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시중(2007), "한·중 경제관계의 평가와 한·중 FTA 전망", 『국제통상연구』, 제12권 제3호, 2007.12 pp. 135-158.
- 김연숙(2008), "한·중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貿易學會志』, 제33권 제3호, pp. 239-256.
- 김영한(2004), "동아시아FTA 형성을 위한 최적협상정책방향 연구", 『국제통상연구』, 제9권 제2호, pp. 61-90.
- 金鐘杰(2004), "우리나라 FTA 정책의 기본방향 -전체FTA 구상 속의 한일 FTA-", 『日本學報』, 第60輯, pp. 525-546.
- 박번순(2003), 『한국의 FTA 전략』, 삼성경제연구원 pp. 88-89.
- 朴晷寅(2002), "東아시아 自由貿易地帶(FTA)의 形成과 中國의 戰略", 『中國研究』, 第31卷 pp. 113-123.
- 吳榮錫 吳政勳 (1995), "韓國製造業의 産業內貿易패턴과 決定要因에 관한

- 研究 -産業内貿易 産業間貿易 補完性假說 檢證-", 『經濟學研究』, 제46집 제4호, pp. 121-150.
- 劉立冬 (2006), 『韓中 貿易構造와 雙務FTA 豫想效果에 관한 研究』, 培材大學校 석사학위논문.
- 尹姬淑 (2004), "韓中日自由貿易協定 (FTA) 에 대한 原產地制度의 實態에 관한 研究", 『大學院論文集』, 第33輯 圓光大學校大學院 2004.8, pp. 273-302.
- 이승태(2003), "한국의 정책과 전망", 『시강경제논집』, 제10권 제4호, p. 450-523.
- 이영광(2007), "우리나라의 FTA추진전략에 대한 소고", 『한국산업경제연구소 논문집』 제10집 pp. 85-102.
- 李章揆 李麟求 呂智娜 趙異竣 (2006), "중국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연구보고서 06-11』,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 27-50.
- 이재득(2007), "중국과 한국의 제품별 산업내무역, 비교우위 및 무역수지 기여도 분석", 『東北亞經濟研究』, 第19卷 第2號, 韓國東北亞經濟學會, pp. 143-178.
- 이호철 (2007), "한·중 FTA의 배경과 전망", 『정세와 정책』, 2007년 5월호 pp. 430-451.
- 이흥지·왕운중 (2004), "한·중·일 FTA 체결에 따른 무역구조의 변화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國際經濟研究』, 제10권 제3호, pp. 33-61.
- 張致順(2002), "中國의 WTO 加入이후 韓中交易 協力方向", 『산업경영연구』, 제11권 제2호, pp. 27-61.
- 정광섭(2007), "한·일 FTA에 대한 고찰: 한·일FTA가 문화관광산업에 미

- 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Journal of Foodservice Management Society of Korea』 Vol. 10 No.1 2007.3 pp. 269-287.
- 鄭永祿(2006), "貿易과 投資의 相關關係 分析: 韓中 貿易收支 論爭을 中心으로", 『經濟論集』, 第44卷 第2號, pp. 225-256.
- 정인교(2005), "한·중·일 FTA 경제효과와 추진 여건 분석", 『東北亞經濟研究』, 第17卷 第3號, 韓國東北亞經濟學會, pp. 1-26.
- 정인교·조정란(2008), "한·중 교역관계 전개와 양국간 FTA의 산업별 영향 분석", 『국제지역연구』, 제12권 제1호, pp. 349-374.
- 鄭煥禹(2007), "과욕과 현실적 제약의 딜레마: 중국의 FTA 경험", 『현대중국연구』, 제9집 2호, pp. 173-210.
- 진병진(2008), "한·중 FTA의 필요성과 추진정책 제언", 『한국동북아논총』, 제48집 pp. 100-120.
- 최의현(2004), "WTO가입이후 중국경제의 변화와 한·중 교역에 미치는 영향", 『한·중사회과학연구』, 제4권 제1호, pp. 83-110.
- 홍정륜(2007), "중국의 지역경제협력과 한·중,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 『중국학연구』, 제39집, pp. 287-310.
- 黃毅青 (2007), 『한·중FTA추진상의 주요 쟁점과 양국의 대응전략 관한 연구』, 圓光大學校, 석사학위논문.
- 황희정(2007), 『한국과 중국 FTA의 경제효과 분석』,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Jeong, Chun Koo(2005), "An Analysis of Major Issues in the Korea-China Relations", 『국제지역연구』, 제9권 제2호, pp. 694-716.

## 2. 중국문헌

- 姜宪九(2008), "中韩建立FTA的可行性与经济效应分析", 『对外贸易』, 2008年第2期, pp. 44-47.
- 刘重力·盛伟(2008), "中日韩FTA战略比较研究", 『东北亚论坛 Northeast Asia Forum』 Vol. 17 No. 1. Jan, 2008, pp. 54-60.
- 孙艳君(2007), "中国的FTA进程与战略定位", 『边疆经济与文化』, 2007年第4期, pp. 13-14.
- 玄可美(2008), "推进中日韩FTA的必要性和可行性", 『合作经济与科技』, 2008年1月号上, pp. 4-6.
- 張建平(2008), "中国制定FTA及其战略方向", 『中国经济现状』, 第20期 pp. 35-40
- 周茂清 (2001), "江苏·韩国两地经济互补性研究", 『社会科学论集』, 第18辑 2001.2.15, pp.17-84.

## 3. 영문문헌

- Baldwin, Richard E(2002), "Asian Regionalism: Promises and Pitfalls", a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eminar on *Perspective on East Asian Free Trade Agreement* organized by the KIEP, 2002.9.27.
- Baier, S. L. and Bergstrand, J. H. (2004), "Econominants Determinants Of Free Trade Agreement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64, pp. 26-93.
- Bond, E. et al. (2004). "Free Trade Area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15 No.1 pp. 1-28.

Drucker, P. F. and Nakauchi, I. (1997), *Drucker on Asia*. Oxford: Butterworth Heinemann. Greene, W. H. 2000. *Econometric Analysis* 4th Edition.

Hale, D. and Hale L. H. (2003), "China Takes off." *Foreign Affairs*, Vol. 82, No. 6, pp.36-53.

Krugman, P. (1991), "The Move Toward Free Trade Zone." *Policy Implications Of Trade And Currency Zones*, Vol. 15 No. 1. pp. 7-41

Krumm, K. and Kharas, H. eds. (2003), *East Asia Integrates: A Trade Policy Agenda for Shared Growth* (Advanced Edition).

Lee, H. S. et al. (2005). *An Economic Effects of Korea-China FTA and its policy Implications*, KIEP.

#### 4. 인터넷자료

한국외교통상부 <http://www.fta.go.kr>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中国人民大学网 <http://www.people.com.cn/>

中国政府网 <http://www.gov.cn>

부록: HS코드 2단위 설명

| 코드 | 품목명                                      |
|----|------------------------------------------|
| 1  | 산동물                                      |
| 2  | 육, 식용설육                                  |
| 3  |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
| 4  | 낙농품, 조란, 천연꿀, 기타 식용의 동물성생산물              |
| 5  | 기타 동물성생산물                                |
| 6  | 산수목, 기타 산식물, 구근류, 절화, 장식용 잎              |
| 7  | 식용의 채소, 뿌리, 괴경                           |
| 8  |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
| 9  | 커피, 차, 마테, 향신료                           |
| 10 | 곡물                                       |
| 11 | 제분공업생산물, 맥아, 전분, 이눌린, 밀의 글루우텐            |
| 12 | 채유용 종자. 과실, 각종 종자. 과실, 공업용의약용식물, 짚, 사료식물 |
| 13 | 락, 검, 수지, 기타 식물성 액즙과 엑스                  |
| 14 |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 기타 식물성생산물                   |
| 15 | 동식물성 유지,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 동식물성의 납       |
| 16 | 육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
| 17 | 당류와 설탕과자                                 |
| 18 | 코코아, 코코아조제품                              |
| 19 | 곡물, 곡물분, 전분, 밀크의 조제품, 베이커리제품             |
| 20 | 채소, 과실, 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부분 조제품             |
| 21 | 각종 조제식료품                                 |
| 22 | 음료, 알코올, 식초                              |
| 23 | 식품공업시 생기는 잔유물과 웨이스트, 조제사료                |
| 24 | 담배, 제조한 담배대용물                            |
| 25 | 소금, 황, 토석류, 석고, 석회, 시멘트                  |
| 26 | 광, 슬랙, 회                                 |

|    |                                           |
|----|-------------------------------------------|
| 27 | 광물성연료. 광물유.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
| 28 | 무기화합품, 귀금속. 희토류금속. 방사성원소. 동위원소의 유기. 무기화합물 |
| 29 | 유기화합품                                     |
| 30 | 의료용품                                      |
| 31 | 비료                                        |
| 32 | 유연. 염색엑스, 탄닌과 그 유도체, 염료. 안료, 페인트, 퍼티, 잉크  |
| 33 |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 화장품류, 화장용품류              |
| 34 | 비누, 유기계면활성제, 왁스, 연마조제품, 양초, 조형용 페이스트      |
| 35 | 단백질계물질, 변성전분, 굴루우, 효소                     |
| 36 |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합금                       |
| 37 |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재료                            |
| 38 | 각종 화학공업생산물                                |
| 39 | 플라스틱 및 그 제품                               |
| 40 | 고무와 그 제품                                  |
| 41 | 원피(모피제외)와 가죽                              |
| 42 | 가죽제품, 동물거트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 핸드백, 기타 유사 제품   |
| 43 | 모피, 인조모피 및 이들의 제품                         |
| 44 |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
| 45 | 코르크와 그 제품                                 |
| 46 | 짚, 에스파르토. 기타 조물재료의 제품과 농세공물, 지조세공물        |
| 47 | 목재펄프, 섬유질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지, 판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 48 | 지와 판지, 제지용펄프, 지 또는 판지의 제품                 |
| 49 | 인쇄서적. 신문. 회화. 기타 인쇄물, 수제문서. 타이프문서, 도면     |
| 50 | 건                                         |
| 51 | 양모. 섬수모. 조수모. 마모사 및 이들의 직물                |
| 52 | 면                                         |

|    |                                            |
|----|--------------------------------------------|
| 53 | 기타 식물성방직용섬유와 지사 및 지사의 직물                   |
| 54 | 인조장섬유                                      |
| 55 | 인조단섬유                                      |
| 56 | 워딩, 펠트, 부직포, 특수사, 끈, 코오디지, 로페스, 케이블과       |
| 57 |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 바닥깔개                      |
| 58 | 특수직물, 더후트한 섬유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과 자수포      |
| 59 | 침투. 도포. 피복. 적층한 방직용섬유직물, 공업용의방직용 섬유제품      |
| 60 | 메리야스편물과 뜨게질 편물                             |
| 61 | 메리야스 및 뜨게질편물의 의류와 그 부품                     |
| 62 | 의류와 그 부속품 (메리야스 및 뜨게질편물의 것은제외)             |
| 63 | 기타 방직용섬유제품, 세트, 중고의류, 중고 방직용섬유제품, 녕마       |
| 64 | 신발류. 모자류. 산류. 지팡이. 시트스틱. 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
| 65 | 모자류와 그 부분품                                 |
| 66 | 산류. 지팡이. 시트스틱. 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
| 67 | 조제우모와 솜털 및 그 제품, 조화, 인모제품                  |
| 68 | 석. 플라스터. 시멘트. 석면. 운모또는 이와 유사한재료의 제품        |
| 69 | 도자제품                                       |
| 70 | 유리와 유리제품                                   |
| 71 | 진주, 귀석. 반귀석, 귀금속, 귀금속을 입힌 금속, 모조신변장식용품, 주화 |
| 72 | 철강                                         |
| 73 | 철강의 제품                                     |
| 74 | 동과 그 제품                                    |
| 75 | 니켈과 그 제품                                   |
| 76 | 알루미늄과 그 제품                                 |
| 78 | 연과 그 제품                                    |
| 79 | 아연과 그 제품                                   |

|    |                                                 |
|----|-------------------------------------------------|
| 80 | 주석과 그 제품                                        |
| 81 | 기타 비금속, 서메트, 이들의 제품                             |
| 82 | 비금속제의 공구. 도구. 칼붙이. 스푼과 포크 및 이들의 부분품             |
| 83 | 비금속제의 각종제품                                      |
| 84 |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
| 85 |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
| 86 | 철도용 기관차량 및 부품, 철도 또는 궤도용의 장비품 및 부품              |
| 87 |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
| 88 | 항공기와 우주선 및 이들의 부분품                              |
| 89 | 선박과 수상구조물                                       |
| 90 | 광학기기, 사진용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br>기와 의료용기기 |
| 91 | 시계와 그 부분품                                       |
| 92 | 악기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
| 93 | 무기. 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94 | 가구와 침구,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 조립식 건물                |
| 95 | 완구. 유희용구. 운동용구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
| 96 | 잡품                                              |
| 97 | 예술품. 수집품과 골동품                                   |